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523호

발 행 인 박 필 수
편집인겸 주 간 지 재 운
편 집 장 문 점 환
외대신문사(☎직962-7128,교965-7001)
의 대 학 보(☎직965-7048,교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 쇄 인 김 영 로

제 509 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9년 3월 14일 (화요일)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설문조사

신입생64%가 미국에 반감표시

입학동기·통일·정치관등 47문항 조사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가 89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13%), 자국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있는 국가(51%)로 답변, 64%가 미국에 대해 반감을 표시했으며 27%가 「미군은 철수되어야한다」고 응답했다. 이와함께 응답자중 48%가 「현노태우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하였으며 93%가 「농민·노동운동에 대한 현정권의 무력적 탄압은 중지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기간중 서울캠퍼스 신입생(1천7백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수거된 8백매중 분석가능한 4백75매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생회활동, 대학생활의 이해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입학동기, 가치관·인생관, 정치·사회관, 통일관등으로 나눠 총4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자신이 합격한 학과에 대해 25%만이 구체적으로 이해한다고 답했으며 현재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대학적응(42%), 성격(20%), 학비(14%) 등을 들었다.

또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재능(41%), 성실(31%), 배경(13%) 등의 순으로 답했고 가난의 원인으로는 구조악(48%), 게으름(28%)등을 꼽았다.

통일의 가능성은 「우리민족의 자주적인 힘만으로 가능하다」고 답한 학생이 44%이며 통일의 장애요인으로는 민족의 이질화(38%), 대외종속성(24%), 집권자의 통일의지빈약과 통일논의의 정치적 독점(27%)등이 지적되었고, 93%가 「민중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응답해 통일에 대한 매우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관해서는 폐쇄적 집단(25%), 독재체제(32%)등 58%가 부정적으로 인식해 북한의 실상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운동은 81%가 긍정적으로, 동아리(써클)는 71%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동아리희망분야로는 취미·문화(50%), 학술(29%)등을 들었다. 총학생회에 대해서는 91%가 학생대표 자치기구라고 답해 총학생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단대, 신입생환영회 개최

오는17일까지 상황극·장기자랑등 열려

서울캠퍼스 각단과대학 신입생환영회가 상황극, 장기자랑(노래경연), 공동체놀이등의 행사로 3월13일(월)부터 오는 3월17일(금)까지 진행된다.

서양어대, 사범대, 법과대는 이미 지난, 13일(월) 민속춤, 연극등의 문화행사로 신입생환영회를 개최하였으며 나머지 단과대는 오늘 치루게 된다.

각단대발족식과더불어 열리는 신입생환영회일정은다음과같다.

▲동양어대:14일(화) 오후3시 대강당. 여학생부연극공연 ▲정책과학대:14일(화)오후5시 대학원(6311). 시낭송, 춘극 ▲상경대:14일(화)오후 3시 소강당. 사물놀이

서울, 용인 학생처 아르바이트 원서접수

서울·용인 학생처는 3월6일(월)부터 3월31일(금)까지 아르바이트희망신청원서를받는다.

용인총학 「신입생입학식」거행

부활 안될경우 매년 개최키로

▲지난 3월 9일(목) 입학식에서석일균부총장과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신입생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다.

용인캠퍼스 「신입생 입학식」이 학교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 주최로 지난 3월9일(목) 오후2시 석일균부총장, 윤원철 총학생회장(사회·경제3)을 비롯한 신입생, 계학생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부총장과 총학생회장 환영사, 꽃다발 증정, 각과 기념촬영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입학식에서 석일균 부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학인의 사명감을 잊지말고 진리탐구와 인격함양에 정진하기 바란다」고 전제하고 「비록 선배들에 의해 조촐하게 준비된 행사지만 희망찬 첫 출발의 자리가 되었으면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원철 총학생회장은 「이땅 한반도의 현실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작금 지식인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슴으로 고민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입학식에 대해 사학과 1학년 김모양은 「간단하고 빈약한 입학식이었지만 기쁨마음으로 맞았다」며 「학교에서 입학식을 폐지한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학교당국에서 입학식을 부활시키지 않을 경우 총학차원의 입학식을 매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총학생회장수배령

신입생 자료집관련 간부3명도 포함

신입생오리엔테이션 기간중 배포된 「신입생수련회 자료집」, 「신입생을 위한 글모음집」과 관련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경제원군(동양·일어4)과 총학생회 간부 3명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내용은 「분단을 뛰어넘어」의 필자인 계미교포 김동수박사(노포크주립대 부교수)가 지난해 서울을 방문해 북한의 실상에 관하여 강연한 내용중 질의·응답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한편, 신입생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해 본교뿐만 아니라 경희대, 건국대등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에대해 총학의 한 간부는 「문제가 된 내용은 발췌본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신입부표를 앞둔 정부의 학원 탄압책」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용인총학생회 총무부로 일원화하였다.

이는 이전의 행사보조금 요청이 무질서하고, 보조금배분이 고르지 않아 이를 시정하기위해서이다. 행사에 관한 총동문회 보조금을 필요로하는 각과, 동아리는 학년초에한하여총학생회 총무부에서 추천서를 받아 접수하면된다.

총동문회 보조금지급 총학이 전담키로

본교 총동문회는 지난 3월13일(월)부터 각 과, 써클별행사보조금지급에 관한 접수창구를

「노정권 퇴진 실천대회」열려

현대노조 테러등 민중운동탄압 규탄

지난 3월7일(화) 오후3시 통일광장에서는 최근 발생한 현대노조테러사건과 관련하여 1백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중운동 탄압하는 노태우정권퇴진을 위한 애국외대 실천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서 현대노조의 투쟁보고및 건대총학생회장 권한태 김관기군(문과대·국문과4)외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자료집사건 보고가 있었으며 노태우와 악덕기업주의 화형식이 행해졌다.

이날 총학생회장 정재원군(동양·일어4)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지금 노태우정권은 광주학살과 5공비리의 진상규명, 반민주악법 개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도외시한채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광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투쟁과 애국민중들의 민주화투쟁을 공권력과 살인테러로 탄압하는 노정권을 즉각 타도하자」고 주장했다.

집회후 학생들은 「살인테러자행하는 현대그룹 정몽준은 퇴진하라」「폭력정권·노태우 정권타도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여동안 경찰에 맞서 돌파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총학·각단대 발대식 열려

서울·용인 총학생회와 각 단대 발대식이 이번주내에 대부분 치뤄진다.

서양어대, 법대, 사범대등은 지난 13일(월)단대장, 과회장소개 및 상반기 사업계획보고등으로 정기학생총회와 발대식을 가졌으며 용인캠퍼스 동아리 연합회도 이날 발대식을 마쳤다.

인문대의 경우 지난 11일(토)출범식과 함께 「신입생 환영을 위한 황산동반대회」를 열고 4시간에 걸친 동판이후 소운동장에 제집결, 파대항 농구시합, 밤불놀이등의 대동제를 벌이기도 했다.

총학생회및 각 단대 발대식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총학생회:15일 오후1시 연수원앞
▲용인총학생회:14일 오후1시 야외무대
▲총여학생회:20일 오후2시 야외무대
▲동양어대:14일 오후3시 민주광장
▲정책과학대:14일 오후3시 6311
▲상경대:14일 오후5시 소강당
▲서양어문대:15일 오후1시 민주광장
▲동양어문대:17일 오후2시 민주광장
▲사회과학대:21일 오후4시 소운동장
▲자연과학대:17일 오후2시 문리학관 앞

용인, 지난9일 간부총회 가져

오늘 학생총회 예정

용인캠퍼스 「제1차 학생간부총회」가 지난 3월9일(목) 학생회관 제6열람실에서 총학생회및 각단대 임원, 과회장, 과대표등 1백50여명의 학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자리에서 총학생회장인 윤원철군(사회·경제3)은 「앞으로 황산학우들을 이끌어갈 간부들의 길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하였다」며 「사분오열된 모습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용인캠퍼스 「제1차 정기학생총회」가 오늘(14일) 명수당 야외무대에서 「제10대 총학생회 출범식」이후 개최된다.

오늘 총회는 1학기 총학생회 사업계획 보고와 학과부 실천사업 보고, 참석자 질의·응답등이 있을 예정이다.

용인, 지정병원 인하대 부속병원으로

용인캠퍼스 지정병원이 지난 12월1일(목) 「연대 부속 광주세브란스 병원」에서 성남시청옆 「인하대 부속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앞으로 「인하대 부속병원」을 이용하는 본교 학생및 교직원은 진료비뿐 아니라 초음파등의 정밀검사시 검진료의 20% 감액혜택을 받게되며 월2회 정기 의료검진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진료비 감액혜택을 받으려면 보건실에 구비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야한다.

사 령

임

취재차장:김기원(법·법학2)
취재차장:임재권(인문·철학2)
논설차장:이상필(동문·일어2)
학술차장:김창섭(동양·일어2)
사회차장:박종진(인문·철학2)
문화차장:한정일(사범·한교2)
사진차장:한성원(동양·마인어2)

〈이상7명 3월14일자〉

면

정기자:장재욱(상경·경제2)
〃 :최윤현(동문·아프리카어1휴학)
〃 :박영숙(동양·아랍어2)
원에 의해 사임

〈이상3명 3월13일자〉

한수로

▲서울, 총학간부 수배령
—고문경관도 못잡는 주제에…
▲용인, 삐삣긴 입학식 강행
—무시가 낳은 기특한 반항(?)
▲시칼등원된 현대테러
—현대구사대엔주방장도 있나(?)

방송언론의 민주화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날, 여름날에…」어머니는 방월동 묘역에 누워있는 아들의 비석을 어루만지며, 영진이가 마지막으로 불렀다던 「봉선화」를 오달쉬인 목소리로 불렀다.

지난달 MBC에서 최초로 방영한 광주항쟁 특집 「어머니의 노래」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우리는 또다른 채널을 통해 80년 5월 광주를 목격할수 있었다. ▲한국방송은 첫출발부터 권력과 분뤂의 밀월관계를 맺고, 「권력에 길들여진 순응논리」로 지배세력에는 예외없이 호의적이고 피지배민중에게는 적대적인 불공정한 횡포를 자행해왔다.

이러한 한국방송의 오랜 불명예가 정치·사회적 민주화를 온몸으로 껴안으면서 새로운 방송으로 태어나야한다는 방송인들의 각성을 통해 벗겨지고 있다. KBS, MBC 노조는 공정보도·방송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방송계의 5공비리청산작업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방송된 광주항쟁특집이나 5공화국관련 특집 「정경유착」, 「인권보고」등은 공정보도 현실화작업의 귀중한 성과물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귀와입으로 거듭남을 위한 방송민주화의 대장정은 험난하기만하다.

「홍보조정실」이나 「보도지침」등의 제도적 탄압기구가 철폐되는 대신 권력중심 인물들이 방송경영진을 비밀접촉하거나, 관변단체동원, 진화부대를 이용한 언론탄압을 계속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노래」재방송이 결정되자 ·문공부차관은 「MBC 폐쇄조치」를 운운하며 방송중단 압력을 넣는가 하면, 광주특집후 문공부장관이 「국가방송제도연구위원회」안을 만들어 「제 2의 언론통폐합」을 꾀하는등 지배세력의 마수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의 방송내용은 과거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방송언론의 민주화」「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는 방송해방의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어있으며, 방송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온도 또한 예전과는 다르다.

방송계의 「제웃입기」운동이 거센 이 격동과 결단의 시기에 전방송인들은 민주적인 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방송이 역사의 참여자이자 변혁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수경〉

진리·평화·창조

國際化시대에 앞서가는 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사설

각대학의 학원자주화 투쟁을 보며

—「자주적 민주대학」건설은 우리 모두의 사명

일제 해방이후 40년간 남한사회는 외세에 의해 민족자주권이 억압당하고 올바른 민주주의가 왜곡, 굴절되어온 파행적인 역사의 연속이었다. 독재권력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제반악법을 만들어 철저히 학원을 유린하였으며 학원의 주인인 교수, 학생, 교직원의 자주성은 외면당해 왔다.

이속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대학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되찾겠다는 주체의식의 고취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를 반증하듯 방학중 각대학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등록금동결투쟁」의 불씨가 개강과 함께 학사행정참여, 학교예산의 공개, 총장직선제등을 포괄하는 「학원자주화」의 불길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대학의 자주권확립과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며 시위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교는 고려대를 비롯 전국27개교에 이른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3월8일자). 이미 본교에서도 작년 12월6일 부터 「학원자주화투쟁」을 전개해 지난 12월24일(토) 예산, 결산심의와 집행과정에서 학생참여가 보장된 것을 비롯, 학원자주화에 대한 기본적 토대를 이루어 낸 바가 있다.

일련의 이같은 추세는 부실한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의 부재가 결국 등록금 인상으로 귀착돼 근본적으로 학원의 자주성과 직결된다는 인식에 바탕한 것이다. 이런 맥락속에서 지난 2월2일 연세대에서 열린 「시총련 대의원대회」에서는 「등록금동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학사행정참여, 재단비리척결과 전임금확보, 문교부의 제정지원확보등 학원자주화투쟁으로의 질적인 상승을 거두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그 의미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학원민주화투쟁은 학생들의 복지부분에만 몰두, 사대적 노예교육척결, 학문사상의 자유등 대학의 구조적 모순을 도외시한 채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함께 학원민주화투쟁 대상에 있어서도 학교당국, 재단 또는 교수와의 싸움이라는 편협하고 좁은 사고를 지녀왔다.

또한 노정권은 과거의 직접적탄압과 달리 최근 등록금자율화방침등의 유화책을 통해 학교당국이나 재단을 대리인으로, 혹은 학생 내부의 싸움으로 유도하여 대사회 비판의식을 희석화시키고 문제의 초점을 학내로 한정시키려는 고도의 공작정치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과거의 오류와 현 상황을 고려할때 진정한 학원의 주체를 세우기 위한 학원자주화투쟁은 필연적이다.

기실 학원자주화투쟁은 학원의 자주성실현을 방해했던 구조적인 틀을 깨고 민족자주교육의 전당을 세우며 학원의 주체가 진정으로 주인된 자리에 앉기위한 몸부림이다. 이제 오욕의 역사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새롭게 자주적 민주대학건설을 위해 각 주체별로 (교수, 학생,교직원)주인된 권리를 찾기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현단계 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

Ⅰ. 들어가는 말

87년 이후 한국노동운동은 실로 엄청난 변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전국에 걸친 노동조합의 광범위한 결성과 지역노동조합협의회의 결성, 나아가 「지역·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가 발족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산하에 「전국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가 89년 연대투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구성되었다. 또한 지난 2월23·24일에 열린 제3차 지역·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에서는 11개 지역노조협의회 대표자와 6개 업종별노조협의회(연맹)의 대표자 총 35명이 참석하여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구성을 위한 준비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기존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발전된 운동의 대열을 형성하여 정치적 진출을 해내야 하는 과제속에 89년 임금인상투쟁(이하 임투)을 맞이하는 만큼 임투의 방향과 과제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투쟁에 임해야 할것이다. 이글에서는 임투와 노동법개정투쟁을 중심으로 지난 88년 노동운동의 성과와 오류등을 비판하고 현단계 노동운동의 과제와 89년 임투의 방향을 진단하였다.

Ⅱ. 88년 노동운동 평가

1. 임투의 성과와 한계

먼저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보면 전국에 걸친 지역·업종별노조협의회의 결성을 들수 있는데, 이는 협의회 합법성 쟁취등과 함께 이후 대중운동발전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조직적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다음, 투쟁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는 단위사업장간의 연대투쟁, 그룹별·지역별·산업별 연대투쟁등 다양한 연대활동의 경험을 축적하였던 점을 들수 있으며, 방위산업체와 공공사업체에서 법적테두리를 넘어서는 탈법적 투쟁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대중운동이 정치투쟁으로 발전되어가는 전망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의식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연대의식의 확산과 대중의 구체적인 투쟁경험으로부터 획득한 정치의식이었고 이는 이후 노동법개정투쟁의 의식적 기초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88년 임투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와 과제를 남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광범한 대중조직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노조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제조업체 조직역량은 아직도 취약한 상태이며 기업별 단위조직의 한계로 인하여 강력한 조직적 지도력을 구축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전국적인 대중조직의 결성과정에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운동의 대중적 연대조직으로 지역·업종 노조협의회가 결성되었으나 이의 정치적 성장을 지원·지도해 나갈 노동운동단체와 상호간 조직적 위상과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있지 못하다.

세째, 임투과정에서 발전적인 투쟁양상들이 보여지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인 의식수준이 기업별단위조직에 한정된 의식수준과 권리의식의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88년 임투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한계점을 피부로 느끼면서 노동법개정투쟁에서 이를 극복해내야만 했던 것이다.

2. 노동법개정투쟁 평가

88년 임투과정에서 노동자대중의 생존권투쟁은 필연적으로 투쟁적·정치적 탄압과 구사대, 위장휴·폐업등과 맞부딪칠수 밖에 없었고 이에 정치권력은 노동자대중투쟁을 기업별 단위로 한정하여 노동운동의 연대·결집을 봉쇄하고 직·간접적 탄압과 함께 개량적 흡수로 양면대응을 하였다. 이로써 노동자대중의 생존권투쟁은 법적·정치적 탄압과 대립될수 밖에 없었으며 부분적이나마 법적제도자체의 구조적 문제와 정치권력의 반노동자적인 본질을 투쟁과정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은 노동법개정투쟁으로 발현되었으며 88년 11월13일 연세대 5만여 노동자대중의 집회와 가두시위로 개확인 되었다.

그러면 이제 노동법개정투쟁을 평가함으로써 현재 노동운동의 역사적인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우리는 임투과정에서 다양한 제도적 요구와 정치적 투쟁의 계기가 대중에 의해 직접 경험되었음을 보았고 이것이 노동법개정투쟁으로 결집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노동법개정투쟁과정에서 각 노조의 조합원대중이 주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당위적 차원에서 혹은 간부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며, 대중적 열기를 추동하는 과정에 기초했다기 보다는 투쟁본부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느낌도 없지 않다.

▲작년 11월 13일 연세대에서 있었던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및 노동법 개정 전국 노동자 대회」의 모습

둘째, 88년 노동법개정투쟁과정에서 「지역노조협의회」와 「노동운동단체협의회」가 공동투쟁 형성을 지향한 의식적·조직적 역량강화라는 관점아래 진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폭을 확대해 나갈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으로서 법조항 개정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민련이 결성된 현시점에서 노동운동이 계급적 이해를 뛰어넘어 민족민주운동의 중추세력이 될 노동운동에 대해 가시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탄압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민족민주운동진영은 탄압을 저지하고 조직적 토대를 강화하기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내야 하며 현실의 대중적인 투쟁을 확대강화함으로써 더욱 강고하게 통일된 투쟁전선을 구축해야하는 과제에 봉착해 있다.

이제 노동운동의 과제와 방향을 가늠해 보기로 하자.

앞에서 우리는 현단계 노동자대중운동의 한계로서 조직역량이 취약하다는 것과 낮은 수준의 정치의식, 그리고 신진역량의 한계등을 지적하였다. 노동운동이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고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89년을 맞이하여 노동자대중운동이 해결해야할 과제를 몇가지로 정리해 보자.

첫째, 가장 포괄적인 과제로서 전국적인 노동자조직의 건설을 들수 있다. 향후 결성될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현단계 노동자대중운동이 안고 있는 기업별 노조라는 한계를 그대로 지니고 있어 그 자체가 전국적 노동자 조직의 완결이라 할수 없기 때문에 계급의식의 보편성을 자각하고 이를 기초로 전 노동자적 투쟁을 감행할수 있는 노동자의 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첫번째 과제를 이끌어갈 선진역량의 구축이 요구된다.

세째, 노동자대중의 정치의식 성장과 정치세력화를 들수 있다. 노동자 계급이 현실속에서 부딪치고 있는 모순의 근본적 해결은 정치권력의 타도와 권력의 획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노동자대중의 정치의식 성장과 정치세력화는 필연적 과제이다.

Ⅳ. 89년 임투의 방향과 목표

89년 임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수 있다.

△단위노조 및 지역노조협의회의 조직력 강화 △어용노조 및 미조직 사업장의 임투 적극 지원 △산별노조건설을 위한 토대작업의 수행 △연대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발전 △교육 및 선전활동의 강화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전선의 구체적 제시가 필요하게 되는데, 먼저 88년 노동법개정투쟁이 단위사업장의 대중투쟁을 추동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계급의식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유의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투과정에서 단위사업장대중투쟁을 강화하고 거기서 고양되는 대중투쟁의 열기를 추동시켜 제도쟁취투쟁, 정치투쟁으로 결합,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단위사업장투쟁을 전노동자의 계급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대중투쟁이 투쟁주체의 요구와 역량조건에 기초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했을때 단위사업장마다 대중의 요구와 역량이 다르므로 그 투쟁의 계기와 상승발전의 경로는 다를수 있다. 그러나 단위사업장투쟁만으로는 그 투쟁의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궁극적 목표에 이를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단위 사업장의 임투는 「노동악법철폐」「8시간 노동제」「구속자 석방」등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요구를 위한 연대투쟁으로 상승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또한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범민주세력의 반노태우 투쟁으로 결합시켜야 할 것이다.

임금인상 투쟁은 노동자 대중을 가장 광범위하게 결집시킬 수 있는 생존권 투쟁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따른 필연적 산물이다.

Ⅴ. 결론에 대신하여

임투는 노동자계급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 노동력 재생산비를 둘러싸고 자본가와 대립하는 생존권 투쟁이며 이러한 투쟁은 노동자 대중을 가장 광범위하게 결집할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임투는 단지 임금인상만을 위한 국한된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억압받는 현실과 불평등및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개하는 보편적인 노동자계급투쟁의 한 과정이다. 이러한 인식에 설때 현단계 노동운동의 당면과제는 가장 광범한 대중투쟁인 임투를 통하여 달성해 낼수 있을 것이다. 임투는 내용적으로는 총자본에 대한 노동자계급 전체의 투쟁이면서도 형식에 있어서는 개별자본가에 대한 단위 노동자의 투쟁으로 나타날 뿐이며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라는 성격과 보편적 계급투쟁이라는 성격이 복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단위 자본가에 대한 보편적인 계급투쟁이라는 인식아래 투쟁의 전선을 확대, 발전시켜야 하며 또한 가장 광범위하게 노동자계급을 결집할수 있는 생존권투쟁을 통하여 자체노동자계급운동의 당면과제를 달성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89년 임투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견지되어야 하는 점이다.

최 혜 경
〈전국 노동법 개정및 임금인상 투쟁본부 상황실 홍보부장〉

조직역량 취약, 낮은 정치의식등은 현단계 노동운동의 한계

노동운동 대중화는 전국적 노동자조직 건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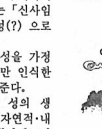
미리보기

▲우리들이 잘아는 여성중에는 「신사임당」과 「유관순」이 있다.

「신사임당」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내고, 시와 그림에 능하며, 인덕(仁德)을 겸비한 「현모양처」로 여겨져 한국여성의 표본이 되어 왔으며, 「유관순」은 굽히지 않는 의지와 뜨거운 조국애를 가지고 일제로부터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앞장선 여성으로 대표되는 인물이다. 이 두여성을 두고 우리사회는 「유관순」보다는 「신사임당」을 한국적 여성(?) 으로 꼽고있다.

이는 대체로 여성을 가정의 파수꾼(?)으로만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성(性)차별은 성의 생물학적 차이라는 자연적·내적모순이 사유재산제도의 발생으로 인하여 성의 사회적 차별로 전환된 것이며, 원시공동체사회 붕괴시기의 계급발생과 동시에 형성되었다.



가정의 파수꾼(?)

현 지배자들은 이러한 성차별을 계급문화의 소산인 봉건적 관습을 고수함으로써 지배자들의 지위를 유지하려는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로인해, 현사회에서는 여성이 변혁의 주체로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태아가 여아일때는 유산시켜버리는 부모의 모습에서, 지임금 남성노동자보다 더 적은 여성노동자의 임금에서, 같은 실력을 소지하고도 취직을 못하는 대졸여성의 모습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이 미제의 폭압속에 있을때, 여성운동가였던 구엔치흥은 「나에게는 오직 굳건한 정열과 깨어나지 않는 투지와 넘쳐흐르는 동지애가 있을 뿐이다… 명세하노니, 혁명이 명하는 숭고한 길에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나아가리라」는 말을 남겼다.

이말은 식민지의 여성으로서, 해방이라는 숭고한 길에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여성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하나의 주체로 서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구엔치흥의 의지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 민중에게 감동과 모범으로 다가온다.

▲현 사회의 모순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받는 신세계는 바로 모순을 짊어지고 있는 개개인이 해방의 주체로 나설때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제, 가장 한국적인 여성은 더이상 「신사임당」일수 없다. 이 시대는 식민지 민중임을 자각하고 소극적인 여성이기를 파감히 거부(?)했던 유관순을, 「가장 한국적인 여성」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

고문경찰 이근안 현상수배

고문기술자 이근안(경기도경 공안분실장, 경감) 을 긴급 현상수배합니다.
이 자는 72년부터 공안경찰로 근무하여 왔고 79년이후 대공분실 등에서
시국사건을 전담하여 소위 "관절뽑기"를 주특기로 하여 물고문, 전기고문등
능숙한 고문기술로 남민전사건, 반제동맹당사건, 김근태씨사건 등을 조작하고
수많은 민주인사의 심신을 파괴한 자입니다.
야만적 고문경찰을 처벌하여 우리사회에서 반인간적 고문행위를 퇴치합시다.

◀사진은 젊었을 때 사진으로 실물은 늙고 몹시 험악한 얼굴임.

● 인상착의 : 일명 반달곰. 신장 172cm가량. 배가 볼록 나왔으며 90kg이상의 거구임. 손이 솥뚜껑만하고 눈이 새치고 흰머리가 있음. 얼굴이 험악함.

● 현 상 금 : 1백만원

● 연 락 처 : 서울 02－764－168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 051－464－6460
(부산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광주 062－222－0047
(민주쟁취 국민운동 전남본부)

1. 경찰은 이근안의 도피행각에 대한 방조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검거, 구속하여 고문사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온국민에게 발표하라!
1. 이근안을 비롯한 고문경찰을 지휘하여 고문수사를 자행해온 치안당국자를 색출 처벌하라!
1. 고문폭압기구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을 해체하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통일조국의 새날을 연다 ③

자주성회복과 평화정착의 조국통일

연방제 통일의 선결조건

핵철거·팀스피리트 중지등, 미국의 정치·군사지배 종식으로 자주권 회복과 평화분위기 조성이 선결과제

민족대단결 저해하는 제반악법철폐로 통일의 내적토대 다져야

글싣는 차례

1. 통일논의의 올바른 관점립을 위하여
2. 연방제통일의 불가피성
3. 통일의 선결조건과 각급교류의 문제
4. 연방국가형태와 통일정부의 위상
5. 연방제통일의 이행방도
6. 통일주체역량 결성을 위한 일고찰
7. 정세변화와 통일운동의 현실적 검근

(1). 들어가는 말

통일강령과 통일의 선결조건을 밝히는 이론·실천적 이유는 조국통일문제를 단지 남한지역의 독자적인(혹은 고립적인) 사회변혁 이후의 북한과의 결합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변혁을 전국적 차원의 민족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조국통일과의 관계속에서 파악하고자 함이다. 또한 그렇게함으로써 남한지역의 변혁만을 절대화시키고 북한과의 관계를 하나의 변수 정도로 파악하려는 교조주의적 편향을 일소하고, 한반도 전체 변혁의 제반 임무들 전면적으로 해명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 투쟁의지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남한지역의 변혁, 조국통일문제를 총체적이고 전면적으로 결합시켜 해명하고 이로부터 남한지역 변혁운동의 당면 투쟁과제를 도출해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현상적으로 조국통일을 상정하고, 언급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제스츄어에 불과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국통일대업이라는 전국변혁의 기본 과표 아래 통일위업 완성의 역량준비를 위한 남한지역변혁의 수행과정에서 조국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인 조국통일의 기본강령과 그에 입각한 통일의 선결조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연방제통일론의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2). 조국통일의 기본강령과 연방제통일

1. 통일문제의 본질

조국통일의 기본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한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크게 보아 다음 두가지의 본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첫째, 통일문제는 외세의 식민지적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우리민족 국가와 국가사이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우리민족 내부의 그 어떤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가 생겨난 까닭은 지금까지 축적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성과에 기초해볼 때, 일본 제국주의를 대신한 미국 침략세력이 우리나라의 38선 이남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매판세력을 앞세운 신식민지적 지배를 행함으로써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유린하고 있는데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의 지배체제를 철폐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은 조국통일과 떨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문제해결과정으로 되며,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기본내용으로서 통일의 과제는 변혁 이후 먼시기의 문제, 혹은 변혁이후 국가간의 문제가 아니라 변혁운동 과정에서 항상적으로 제기되고 추구해야 할 당면 실천과제로 나서게 된다.

다음으로 조국통일문제의 본질로 되는 것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초래되고 있는 제반의 왜곡된 불신과 반목,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같은 핏줄,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겨레로서 전민족적 단합을 이루는 문제라는 것이다. 분열주의 세력이 주장하듯이 통일문제는 사상과 제도가 다른 남북한이 일거에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통일문제는 그 어떤 계급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즉 「사상과 제도의 통일」을 이룩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해 일시적으로 갈라진 나라를 재통합하는 문제이며, 남과 북 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고 자주적인 민족역량의 강화를 이루는 문제이다. 따라서 「분할하여 통치하라!」라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침략수법에 의한 남북한간의 마찰과 적대성을 민족적 대의에 입각해 분쇄하고, 통일로써 얻을 수 있는 민족적인 진보와 장점, 이익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연방제 통일방안은 통일문제의 이같은 본질에 그대로 부응하는 방안으로 된다.

2. 조국통일의 3대 기본강령

통일문제의 본질이 이러했을 때 우리는 조국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난관과 장애를 전적으로 우리민족 자신의 의사에 맞게, 우리민족 자신의 힘에 의해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와 원칙이 제기되는 이유는 통일문제가 본질에 있어서 민족자주권의 침해로부터 발생되었기때문에 그 해결은 결국 민족자주권의 침해, 즉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는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있으며, 또한 민족성원의 한결같은 통일에 대한 지향과 요구에 입각했을때 그 어떤 외세의 외존도 없이 자체의 힘으로 민족내 제결합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1985년 7월15일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류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회담장면.

"통일은 남한의 독자적 사회변혁이 선행된후 북한과의 결합이 아닌 한국사회 발전의 한 단계로서 전국적 차원의 민족문제로 보아야 한다."

①자주의 원칙

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 3대 원칙 중에서 중핵을 이루는 기본원칙이다.

자주의 원칙이란 한마디로 민족의 자주역량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자주권의 침해로부터 발생되었기때문에 그 해결은 결국 민족자주권의 회복, 즉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는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있으며, 또한 민족성원의 한결같은 통일에 대한 지향과 요구에 입각했을때 그 어떤 외세의 외존도 없이 자체의 힘으로 민족내 제결합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②평화의 원칙

평화의 원칙이란 조국통일을 남과 북이 상대방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방법이아니라 평화적인 각종 협상, 교류, 합작에 의해 이룩한다는 것을 말한다. 평화의 원칙이 제기되는 이유는 평화적 방식의 통일이 전체 민족성원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이기 때문이며 또한 전세계의 안전을 바라는 세계평화애호민중들의 절실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평화의 원칙이 지켜질 때만이 전쟁에 대한 공포로부터 초래되는 남북한 민중들의 통일의지의 반감을 막을 수 있고, 특히 남한지역 변혁운동의 계속적 발전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결집을 이루어 통일위업에 그들을 조직동원할 수 있기때문이다.

③민족대단결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조국통일을 염망하는 남과 북의 각당, 각파, 각 세력들이 민족우선의 조국통일 기치밑에 하나로 맞라치고 단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대단결의 문제가 조국통일의 원칙으로되는 근거는 첫째, 조국통일은 이를 원치않는 극소수의 사대매국세력을 제외한 전민족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과제이기 때문이며, 둘째, 현실에 있어서 분할하여 통치하려는 제국주의세력의 민족이간책동을 물리치고 남북 상호이해와 민족화해를 추진하는데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3. 연방제통일방안의 의의

1민족국가체제의 연방제통일방안은 조국통일 3대 기본강령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유일무이의 통일방안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연방제통일은 조국통일 3대 기본 것에 입각해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한국사회변혁과 통일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평화적 양상은 전적으로 제국주의의 침략도발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므로 1국가로 되는 연방국가의 자결적 시책에 의해 한반도의 긴장완화, 미군무력의 한반도 완전철수, 남북군사력의 대폭적 감축을 이루어나갈 것인바, 이는 미제국주의의 무모한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침징이 된다. 이럴 경우 만약 제국주의 침략도발이 강행되면 연방통일국가에 대한 정치적 간섭보다 훨신 강도높게 전세계 평화애호 민중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연방제통일은 또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철저하게 실현하고 있다. 우선 남북한이 사회의 성격이나 정치·경제의 발전단계에서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고, 대중의 의식수준, 정서, 중요한 생활상의 요구 등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현실에 기초해 볼 때, 2체제로서 이같은 현실적 차이를 인정함과 아울러 연방1국가로서 연방정부가 남북의 현실적 차이를 통일된 정책에 입각해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것이다. 원칙에 입각한다고 했을때, 연방제통일의 선결조건이란 조국통일 3대원칙을 쟁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와 과제를 의미하게 된다. 한편 연방제통일의 선결조건의 확보는 남북한의 통일지향세력이 함께 추진해나가야 하는 민족적 과제인 만큼 한국변혁운동 과정에서 애국민주세력이 지녀야할 투쟁과제로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1. 자주의 선결조건

자주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나서는 선결적 요구는 첫째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종식하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통일의 기본 장애물인 미국의 정치·군사적 간섭과 지배를 종식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민족자주권을 팔아먹는 매국집단의 외세의존·매국정책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이다.

세째는 한국민중내 깊이 침투해 있는 사대주의, 특히 미국과 서구문물에 대한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민족자주적인 정기와 문화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2. 평화의 선결조건

평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특히 남한내 존재하는 1천여기의 미군핵무기 철거, 팀스피리트를 비롯한 침략적 전쟁연습의 중지, 정예한 미군기지의 철거는 무엇보다도 앞서는 과제이다.

둘째는 멸공통일, 승공통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남북총선거등 서로를 적대시하고 전쟁의 방식으로 상대방 체제를 흡수하려는 식의 시대착오적이고 도전적인 대결정책을 철폐하는 것이다.

3. 민족대단결의 선결조건

민족대단결의 선결조건은 첫째,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상과 제도가 틀려도 서로 단결하고 뭉칠 수 있다는 민족대단결의식의 고양과 이를 위한 제반 조직(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반공국시의 철폐등)가 요구된다.

둘째, 정치·경제·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모든 세력이 남북합작과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4). 선결조건확보와 한국사회 변혁운동

그런데 조국통일의 선결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남한변혁운동을 추진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조국통일의 선결조건이란 조국통일 3대원칙을 쟁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와 과제를 의미하게 된다. 한편 연방제통일의 선결조건의 확보는 남북한의 통일지향세력이 함께 추진해나가야 하는 민족적 과제인 만큼 한국변혁운동 과정에서 애국민주세력이 지녀야할 투쟁과제로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정치·경제·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모든 세력이 남북합작과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세째는 한국민중내 깊이 침투해 있는 사대주의, 특히 미국과 서구문물에 대한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민족자주적인 정기와 문화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2. 평화의 선결조건

평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특히 남한내 존재하는 1천여기의 미군핵무기 철거, 팀스피리트를 비롯한 침략적 전쟁연습의 중지, 정예한 미군기지의 철거는 무엇보다도 앞서는 과제이다.

둘째는 멸공통일, 승공통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남북총선거등 서로를 적대시하고 전쟁의 방식으로 상대방 체제를 흡수하려는 식의 시대착오적이고 도전적인 대결정책을 철폐하는 것이다.

3. 민족대단결의 선결조건

민족대단결의 선결조건은 첫째,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상과 제도가 틀려도 서로 단결하고 뭉칠 수 있다는 민족대단결의식의 고양과 이를 위한 제반 조직(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반공국시의 철폐등)가 요구된다.

둘째, 정치·경제·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모든 세력이 남북합작과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세째는 한국민중내 깊이 침투해 있는 사대주의, 특히 미국과 서구문물에 대한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민족자주적인 정기와 문화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5). 맺는말

오늘날 변혁운동이 새로운 질적 비약을 이루기 위한 사상·이론적 영역에서의 관건적 과제는 바로 인식상의 지평을 남한지역만으로 국한하려는 교조적 경향을 떨쳐내고 보다 적극적으로 전체민족의 자주권 확립을 위한 전국적 범위의 운동 수행 과정을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명하고 합의해 내는 것에 있다고 본다.

특히 올해 미국과 현정권의 분단고착화책동이 한층 노골화되고 「왕래와 교역」으로 대표되는 현정부의 분열지향적 교류추진 음직임과 법민족대회, 청년학생측진, 농민들의 농산물교류, 윤이상씨와 같은 예술인교류 등의 통일지향적 남북교류운동에서 대규모적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인 만큼 운동의 나침판이될 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올해 통일운동의 하나의 목표로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철 호
〈점치 평론가〉

학생생활연구소 이용안내

1. 상담 및 심리치료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개인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며, 이성문제·교우문제·가족관계 및 성격·대인관계·불안성향·신경증 등 개인의 삶에서 갖는 심리적 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신청:학생회관 2층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신청실(212호)
*담당교수—심리상담:서병완, 정영윤 교수. 유학상담:박기덕 교수

2. 심리검사
각종심리검사도구(지능검사, 적성검사, 인성검사, 흥미검사, 자아개념 등…)가 비치되어 있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무료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과 해석에 따른 상담도 실시합니다.
*심리검사 이용시간
지능 및 적성:화, 목 7교시
인성, 흥미, 자아개념, 자아실현검사: 월·금 7교시

3. 자료실
자료실은 취업, 유학, 대학원 등 개인의 진로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와 대학생활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비치하여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대학 대학원 모집요강 및 실전문제
·회사연감, 리쿠르트, 종합언론고시
·해외 유학 종합 가이드, 국내외 유학 안내서 등 다수
*자료실 이용시간
매주:화·수·목·금(10:00~17:00)

4. 자기성장과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상담
개인의 삶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자아개발 및 자아실현프로그램으로써 함께모여 자신을 개발하고 타인과의 상호 이해 경험을 가지면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인간관계 기술의 습득 및 자신의 긍정적인 잠재능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실천적인 자아실현 경험의 장을 마련합니다.
*장소:이문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용인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교대 사용)
*기간:1989.3.22부터 매주 수요일 7.8교시 총8회 실시(시험기간제외)
담당교수:서병완, 정영윤 교수
*신청기간:3.21(화)까지 각 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신청실

5. 효과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집단토의 및 상담
대학생활에서 갖는 여러가지 문제중 관심분야를 선정하여 함께 토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새로운 정보와 기치를 습득하고 내면화하여 자아발전을 도모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토의 및 상담 주제
·북수전공의 이해와 전망
·대인관계의 문제점과 향상방안
·이성교제의 의의와 문제 및 대처방안
·해외유학의 의의와 전망 및 절차
·학습습관 진단과 효과적인 학습방법의 모색
·性의 정신분석
·노이로제의 이해와 치료
*담당:서병완, 정영윤, 박기덕 교수 및 관계 전문가
*일시 및 장소:3월넷째주 부터 중간시험 기간 2주를 제외하고 5월말까지 매주 실시하며, 이문 캠퍼스는 목요일 7.8교시, 용인캠퍼스는 화요일 7.8교시에 각 캠퍼스 별로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학교신문과 공고를 통하여 통지됩니다. 많은 관심있기 바랍니다.

학 생 생 활 연 구 소

대학장학생(신입생)모집

(학군·학사사관)

·모집인원:○○○○명
·지원자격:4년제대학 신입생('69. 1. 1~'73. 1. 1출생자)
·지원서교부 및 접수
·기 간:'89. 2. 22~3. 25(학군단본부)
·구비서류

1 차 (지원시)
·지원서및 서약서……1부
·대학입학 성적증명서……1부
·사 진(4×5㎝) ……1매

2 차 (신검검사시)
·호적 및 주민등록 등본……각2부
·재정보증서·납세및인감증명서…각1부
·사 진(4×5㎝) ……3매

·선발절차
·1 차:서류전형 (입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2 차:신체검사
·합 격 자 발 표:'89. 7. 3.
·특 전
·학군 및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자동선발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지급
·희망 및 전공 학과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 선발및 취우)
※문의처:학군단 행정실
962-7124, 965-7001(교)2412.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제119학생군사교육단

수 강 생 모 집

1. 모집학과 및 인원
영어과(2개반) 50명, 일본어과(2개반) 50명
2. 교육일정
1)기간: 1989. 5. 1. —1989. 7.21. (12주교육)
2)교육시수: 1일 3시간 (18:30—21:20)
3)주당일수: 5일 (월요일—금요일)
3. 지원자격
본 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지망학과 외국어 비전공자
4. 시험과목: 지망학과 외국어 필기시험
5. 제출서류: 소정원서 및 사진1매
6. 원서교부·접수: 1989. 3. 6. —1989. 3. 18.
7. 전형료: 6,500원
8. 전형일시: 1989. 3. 25(토) 14:00 외국어연수원
9. 합격자발표: 1989.3. 31(금) 14:00 외국어연수원
10. 수 강 료: 162,000원 (월 54,000원상당) 일시납
11. 등록기간: 1989. 3. 31(금)—1989. 4. 8(금) 외국어연수원
12. 기 타
본 교육은 학부 재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년3회 실시함.
본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에따라 모집학과의 조정이 가능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국어연수원 교학과에 문의바람.
전화 (직통) 962—7119, (교환) 2174.

1989년 2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외 국 어 연 수 원

"떼부자되자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입니다"

——단일한 대오 결성한 「전국농민운동연합회」발족에 즈음하여

주제 인터뷰

◇대담자: 윤정석
〈전국농민운동연합 위원장〉
이 진 사회부장

▲기자—봄이라 농사일로 한참 바쁘신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2월13일 여의도에서 있었던 「수세폐지및 고추 전량수매를 위한 전국 농민대회」로 인하여 농민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게 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각방송,언론매체나 정부의 태도는 농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면서 배후 수사, 검거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욱이 『일간지 기자에 대해 농민들이 구타를 했다』, 『죽창과 낫, 곡괭이로 난동을 부렸다』는 등의 보도가 난무하는데 대해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어요. 고추파동, 수입개방때문에 지역운동이 농민대중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고 이것이 2·13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목할 것은 지도부의 활동이 활발하게 못했음에도불구하고 자주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북 「임실」지역같은 경우 1천1백명이 22대의 버스에 나누어타고 서울로 올라왔을 정도였지요. 바로 이러한 농민참여가 3월1일 「전농연」을 결성하는 추동력이 된 것입니다. 정말 통쾌합니다.

▲기자—농민운동의 역사가 오래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에 전국농민연합회와 같은 커다란 단일 조직으로 뭉치게 된것은 해방이후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압니다. 전국 1백37개군중 95개군이 참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와같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체계가 갖추어지게까지는 많은 준비과정들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윤정석—갑탁히 농민운동의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농민운동이 자리를 잡게 된것은 70년대 「가톨릭농민연합회」와 「기독교농민연합회」가 생기면서부터입니다. 그이후 이들 조직의 활동이 심화되는 농민들의 생존권적 위기와 결합되면서 80년대부터 급격히 발전을 보았습니다. 학생운동이 이에 일조한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87년, 88년 투쟁의 현장으로 뛰어나온 농민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해지자 종교적 한계를 갖고 있던 양측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전국적 연합체의 필요성을 절감, 「전국농민연합회」를 꾸리게된 것이지요.

▲기자—그런데 87년 발족돼 활동해오던 「전국농민협의회」가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꽤 큰 진통이 있었다고 하던데.

▲윤정석—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사상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농민문제를 풀어나가는 전술적 방법들에 양측이 의견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지요. 그러나 조만간 통합은 꼭 이룰 것입니다. 역량의 분산은 어떠한 이유로도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요.

▲기자—농민운동의 양대 축이라 할수 있는 「기농」과 「전농」이 그동안 종교단체라는 제약으로 인해 농민들로부터 일정부분 거부감을 당하면서도 꾸준히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전농연」의 발족으로 인해 그들의 자리매김이 새롭게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석—그들이 농촌으로 들어갈때 종교적 차원에서 들어간 것은 분명하나 뚜렷한 농민문제 해결 자치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작금 농민단체의 결성기초를 마련 「전농연」건설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농민운동계에서 구축해왔던 역사적 자산을 흔쾌히 버리고 「전농연」에 참가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종교단체 차원에서의 활동을 계속해야겠지요.

▲기자—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농연」의 요구중에는 「남북 농산물 직접교류」안이 있습니다. 남북교류 추진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작금, 농민계에서 이와같은 요구를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윤정석—각계에서 북한과의 교류 요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 해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85년의 소값파동, 양담배 수입으로 인해 담배재배타격, 그리고 고추값 폭락과 비농축산물 수입개방 전면화가 「자살하는 농민」을 속출시키자 미국은 한국 농민을 죽이는 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큰 기여를 한것이 가농과 기농입니다. 이두 단체는 그동안 농촌문제의 원인에 대한 농민교육작업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것이 작년, 올해 농민운동이 커다란 역량대오로 변천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지요. 이제 우리들의 구호에는 항상 「미국은 물러가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기자—대체적으로 보면 노동운동이 3·4월 임금인상투쟁으로 한해의 투쟁을 시작하듯, 농민계에서는 농한기인 가을 추수이후 겨울동안만 좀 활발히 운동을 하고 농번기가 되면 다시 잠잠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조된 농민운동의 지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정석—맞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점이 농민운동의역사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농촌문제의 해소를 이루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별다른 해소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작물수확의 시기가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므로 지역적 집회를 자주 갖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기자—지지기반이 빈약한 현정권에 맞서 단일한 대오로 민주세력이 대항하는 것은 앞으로의 정국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농연이 이와같이 튼튼한 전국적 농민조직으로 출범함에 따라 타 조직과의 연대도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윤정석—현재 민족민주 운동세력의 중심체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이 발족·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대의원 구성에서 알수 있듯이 전민련 구성의 주요 인원은노동자와 농민입니다. 그야 말로 민중주체 조직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전민련과 전농연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투쟁은 민중의 세상, 농민들의 세상을 하루라도 앞당기는데에 북두할 것입니다.

▲기자—농민운동부분으로 국소시켜 생각해볼때 농민들의 요구는 한 목소리로 커졌다고 하나 아직까지 경권은 농민문제 개선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전농연의 89년도 사업 전망은 어떠하신지요.

▲윤정석—우선 당면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부터 도 부채에 짓눌려 죽을 판입니다. 전국 농민 1인당 3~4백씩 안고 있는 농가부채의 전면탕감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또한 농산물쇄값받기, 조합의 민주화, 농협법의 개정등 수없는 문제가 산적해 있으나 노태우의 「수입개방전면자율화발표」는 농민들의 목을 그나마 졸라 죽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떼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활만이라도 보장받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89년에는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투쟁의 성과물들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반노태우 전선에 공동참여할 것입니다. 지자체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조합장 선출이나 중간평가에 대한 입장정리·생존권적 요구를 정치권적 요구로 끌어올리는 일들이 주요한 임무가 되겠지요. 또한 통일운동, 반미운동등에도 적극 가담할 것입니다.

▲기자—위원장님께서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말씀해주시지요.

▲윤정석—사실 저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민운동에의 적극적 투신입니다. 항간에는 농촌의 보수성때문에 농촌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등의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저는그런 이유들로 해서 학생들이 농촌으로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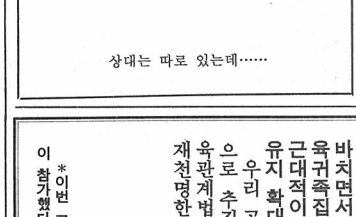
그리고 두번째로는 개인적 욕망을 버리고 대아(大我)를 위해 희생할줄 아는 청년학도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나라의 운명은 청년학도가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야 하며 그러할 때 우리 농민들도 더 큰 힘을 얻을 것니다.

▲기자—장시간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 반대, 농가부채탕감, 조합민주화

농민들의 생존권확보투쟁 정치투쟁으로 견인해야

외대만평



상대는 따로 있는데……

교수 컬럼 「악마의 시」와 무슬림의 분노

김 정 위
〈이란어과 교수〉

이슬람 신앙의 쿠란과 마호메드등을 모독한 구미 문화의 침략은 이란에 대한 정면도전적 배교행위

희한권이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도 드물다. 일반독자뿐만 아니라 정부간의 갈등으로 이란과 영국은 국교를 재개한지 몇달 안되어 다시 단교에 까지 이르렀으니 말이다. 「악마의 시」란 희한권은 이 두나라의 질서체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체제는 반드시 이념을 가지게 마련인데 영국과 이란은 이 책에서 양국의 국가이념이 서로 상이하게 대립된다.

국가가 인류역사에 등장한 이후부터 국가는 고유의 통치체계를 정당화시켜 영속화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고유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념, 행동, 조직을 국가전복음모 또는 반역이라는 대죄로 다스린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영국을 비롯한 구미각국은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신봉하는 체제를 정립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위에서 제정된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국내법에 위배될 때는 박해와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호메이니의 이란은 이슬람을 국가이념으로 삼아 신정체제를 갖추고 있다. 즉 이슬람원칙에 바탕을 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살만 루시디의 「악마의 시」란 소설이 영국에서 출판되었고 이것은 영국의 국내법에는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이슬람을 국시로 삼고 있는 이란에는 정면도전장과 같은 것이다. 무슬림은 쿠란을 태초에 하늘에 씌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 그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인간에게 계시하였다. 즉 하늘에 있는 태초의 글을 복사처럼 정확하게 인간에게 전달하여 만든 책이 바로 쿠란이라 믿는 것이다. 쿠란은 구약과 신약과는 달리 그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다. 구약과 신약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신자는 믿고 있지만 모세오경, 누가, 요한, 마태 등의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받아 모세, 누가 등이 쓴것으로 신학자들은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소설속의 예언자는 계시를 받아 서사(書士)에게 말하면 서사는 그대로 받아쓰지 않고 제마음대로 수정, 삭제하여 기술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쿠란의 권위자체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용서할 수 없는 배교행위인 것이다. 더구나 이 예언자는 가끔 악마로 부터도 계시를 받아 유일신의에 세여신도들에게 신봉하게 했으며 나중에 예언자가 그 계시를 원본에서 삭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표현은 물론 가공적이지만 쿠란에 대한 불신행위를 조장하는 의도라 무슬림은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표현은 19세기에 유럽선교사들이 중동의 여러 문헌속에서 찾아 이슬람을 공격했던 대목이다. 이 소설속의 예언자이름은 마혼드라고 하는데 이 명명한 것과 예언자의 아내들을 무슬림의 어머니로 존경하고 있는데 이 아내들의 이름을 매춘부의 이름으로 이 소설속에서 사용한것 등은 너무나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것은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를 창녀로 둔갑시키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악마의 시」가 어디까지나 가공적인 소설의 형식을 빌었지만 이슬람신앙의 대들보인 쿠란과 핵심인물들을 모독한 것은 이슬람의 한계내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이슬람성법의 한계이다.

무슬림들은 다른 모든 것에 관용적이 될 수 있지만 신앙의 모독은 그 예외이다. 대부분의 아랍무슬림국가지도자나 정부는 이 문제를 외교쟁점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이 나라들은 세속국가로써 정교분리를 은연중에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란은 헌법에서 이슬람신정국가임을 밝히고 있어서 그 지도자와 정부는 「악마의 시」를 묵시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즉 구미열강은 제3세계의 이느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비리를 폭로하여 전복하는 수단으로 언론자유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교묘한 문화적 제국주의의 침략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란의 대서방 강경책은 이슬람세계를 대변하는 셈이다.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한다

지금 불구화되고 황폐화된 우리 교육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조치는 교육악법의 민주적 개정이다. 우리 『전국 국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단』, 『전국 교수협의회 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작년 하반기 이래 현행의 반민주적 교육악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공청회, 심포지움, 결의대회 개최, 개정안 국회청원, 철야농성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교육관계법 개정방향에 대한 지극히 반동적인 것이었다. 특히 지난 24일 노태우씨의 기자간담회는 소위 6공화국의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에 지나지 않았다. 5공비리 청산, 광주학살 책임자 처단은 물론 교육관계법을 포함한 제반악법의 민주적 개폐의지를 전혀 지니지 않은 노정권과 그 부속물인 민정당은 그 어떤 술책으로도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 정기국회에 즈음해서는 비교적 민주적인 교육관계법을 단일안으로 확정하였을 뿐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한교련, 사학재단연합,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립대학교 교장단 등 반민주 교육귀족집단의 교육관계법 민주적 개정 저지책동에 사실상 동조함으로써 단일안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평민당만이 작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 민주안을 고수하고 있을뿐 민주당은 적극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4단체는 30만 교사와 2만 교수의 교육민주화 염원을 모아 마련한 교육관계법 개정 단일안의 내용을 두고 방학이라는 어려운 조건에서 서명운동을 전개, 1차로 74개 대학 3천6백43명의 교수의 이름으로 전적으로 지지하는 이 전국 74개 대학 3천6백43명의 교수단체 단일안을 야권 3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민정당 등에게 경고한다.

1. 야권 3당은 이번 회기내에 교육민주화의 필수요건인 교육자치의 실질적 실시, 교수협의회 및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총학장 및 교장 직선, 교원의 노동3권 등을 보장하는 민주적 교육법을 통과시켜라.
1. 평민당은 민주적 교육법의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경주하라.
1. 민주당은 노정권 및 반민주 교육귀족 집단과 타협하지 말고 민주적 교육관계법 단일안의 작성및 통과를 보장하라.
1. 공화당은 노정권 및 반민주 교육귀족집단의 충복 노릇을 중지하고 교육악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타야당과 공동보조를 취하라.
1. 민정당과 현정권은 교육악법의 존치와 국민적인 교육민주화 요구의 압살을 획책하지 말라.
1. 파쇼정권의 비호 아래 교육과 교육기관을 독재권력의 시녀로 바치면서 사리사욕을 충족시켜온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반동적 교육귀족집단은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교육민주화 요구에 대해 전근대적이고 계층이기적인 궤변을 농하면서 모순에 가득찬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려고 망동하지 말라.

우리 공동투쟁위원회는 민주교육법 쟁취 교수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단체들과 연대하여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연히 투쟁할 것임을 재천명한다.

1989년 2월 27일

민주교육법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이번 교육관계법 개정성명서에는 본교교수 10명을 포함한 전국74개교 3천6백43명이 참가했다.(2월27일 현재)

소련의 개혁정책과 남한의 북방정책

◇대외정책의 내적연관성과 필연성을 중심으로

임 정 환
〈본교대학원 동구지역 학과 1학기〉

1. 머릿말

볼셰비키혁명 이후 최대의 사회개조 작업인 페레스트로이카운동은 1985년 3월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고르바쵸프가 4월 당총회에서 페레스트로이카의 개혁의지를 천명함으써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이 개혁정책은 경제와 문화, 심지어는 정치문제에서 행사하는 관료들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고,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보다 많은 자치와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후르시쵸프가 소련 경제체제를 분권화 시키고 관료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구상의 한계(그는 관료체계 그자체에서 멈췄고 체제내에 대중의 창발성에 근거한 보다많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경쟁을 도입하려고 애쓰지 않음으로 결국은 관료체계의 세력조차도 약화시키지 못함)를 「사회주의는 대중의 생동하는 창조력 이다」라는 레닌의 원칙으로 극복하여 더많은 사회주의와 더많은 민주주의의 번중발적 발전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신국제질서에서의 평화공존은 필연적으로 제기되며 소련은 이를 「새로운 정치적 사고」에 입각한 군축·적극적 평화 공존·상호의존등의 대외정책으로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상호불신 등을 해소하고 있다. 이런 세계질서의 와중에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세변화(군축을 통한 유럽에서의 긴장완화에 이어 소련의 관심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고르바쵸프정권의 새로운 외교노선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986년 7월의 블라디보스톡선언 이래 87년12월의 모든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인 「아시아 국가회의 제안」, 그리고 88년9월 동부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밝힌 「아시아·태평양 7개 평화안」에서 확인된다.

이런 제반의 아·태지역에 대한 소련의 접근은 소련의 대외노선의 요체인 군축을 통한 평화공존과 국내경제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경제교류라는 측면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며, 평화공존과 군축은 한반도분단모순의 해결에 있어서도 선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들인 만큼 평화공존정책의 참된 의미나 그것의 우리 민족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절실하다 하겠다.

현하의 정치정세에서 우리가 소련의 개혁정책과 대외정책을 고찰해야만 하는 커다란 이유는 단순히 소련의 개혁정책과 대외정책의 이론적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 고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한사회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구조적 모순의 표출과 이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실천적 노력의 일환인 사회변혁운동과 소련 대외정책의 내적연관성과 계급모순, 민족모순, 분단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전술적 필요성에서이다.

물론 남한의 변혁운동이 주변 강대국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 자신의 투쟁으로 달성하여야 한다는 점은 한시라도 잊혀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세계변혁운동은 우리에게 주·객관적 정세에 대한 파악성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고는 소련의 개혁정책과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대외정책을 고찰하여 국내외 독점대자본이 공산권의 시장잠재력을 찾아 진출하는 자본의 논리에 의한 북방정책의 필연성과 딜레마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페레스트로이카의 객관적 필요성

단순히 당내 지도층의 세대교체 이상의 변혁을 시사하고 있는 진 지구적 차원의 평화공존과 상호의존이라는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대내적으로 경제·사회발전을 가속화 시키기 위한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며 둘째는 대외적으로 동·서간의 긴장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적 사고」인데 이 두축은 소련사회에 의 필요하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10월혁명이후 소련은 사회주의 발전과정에서 워대한 진보적 입적 및 다방면의 거대한 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생활에서 인민의 적극적인 역할이 평가절하됨으로써 무기력과 정치적 소외를, 그리고 당내에서는 관료주의가 나타났으며, 국가경제, 경영의 면에서는 과도한 중앙집중계획경제 및 평등주의의 폐단이 발생하여 고도기술산업과 생산효율성의 낙후현상이, 사회부문에서는 주택문제, 의료, 레저, 후생복지 등 각분야의 질적·양적 개선문제가 대두된 점이 페레스트로이카를 객관적인 필요성으로 제기하였다. 이런 모순된 상황아기는 사회주의사회의 모순의 성격을 비적대적 모순으로 규정, 자본주의 내에서의 적대적 모순과 대비시켰던 이론적 틀의 교조주의적 적용과 관념성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사회주의 현실과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방기했던 것에 대한 정면도전이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혁명이후 비교적 순탄하게 그리고 생산력 측면에서는 폭발적인 외연적 발전을 이룩해온 소련 사회경제체제가 빠져든「전(前) 위기적인 징후와 딜레마」(방전된 외연적 생산력과 자본제적 유제에 의해 왜곡된 생산관계의 모순)를 극복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였으며 제2단계 사회주의에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도 대중의 활성화를 안팎의 부정적 현상에 대한 파감한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수술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개방), 「새로운 정치적 사고」의 변증법적 통일에 의한 발전을 요구 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로 대변되는 소련사회주의 개혁의 본질은 과거 스탈린식 사회주의 건설에서 파생된 문제를 정리해서 사회주의 건설패도를 복구하자는 것이다. 즉, 스탈린식 경제방침《개인소유제의 철저한 폐지, 파도한 중앙집권식 경제·행정체제》을 그 자체로 사회주의라 규정했으나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내포했다. 그리고 현대의 소련은 스탈린시대와는 다른 과제《낮은 생산력의 단계에서 벗어나 세계제2위의 산업국으로 부상해있는 소련의 경제적 과제는 왜곡된 사회주의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사회·정치·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해소 시켜야 한다》에 직면하고 있다. 이 과제는 낡은 경제메카니즘을 극복하고 보다 민주적인 정치질서의 확립과 글라스노스트(개방)로 인민의 창조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형성에 촛점을 맞춤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었다.

▲소련은 개방정책이후 유럽및 아·태지역에서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산고〕에 입각한 고르바쵸프와 프랑스 수상수상하의 접견장면)

북방정책은 세계 자본주의위기 전면화에 따른 시장개혁 필연성과 파쇼 정권이 정국주도 돌파구를 찾기위한 술책

이런 제반 모순의 해결을 위한 페레스트로이카의 내용은 첫째:정치개혁《당의 자기비판력 회복을 통한 당의 권력과 역할의 제조정》이다. 이는 공산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복수후보제등)과 소비에트 기능의 강화를 통한 당과 국가의 전제로 실천되고 있다. 둘째:정치성장 단계의 경제개혁을 내용으로 제기한다. 이는 상품-화폐관계를 활성화시키는 시장기능의 경림, 사기업 활동의 확대, 국가기업의 자주권과 책임감의 제고, 노동조합의 기능강화로 진행되고 있다. 세째:글라스노스트를 통한 대중의 소외극복 이다. 이는 대중참여를 통한 정치적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책으로서 현재 언론의 자유와 검열제도의 폐지, 나아가 예술·문학등 문화 전분야에서의 해금조치의 단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째:「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대외정책에서의 평화공존정책인데 이는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과의 연결고리이기에 소련대외정책의 기조와 변화과정에서 「새로운 사고」가 왜 필요하며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소련대외정책의 기조와 변화

소련외교정책의 기조는 10월혁명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이래 평화공존 원칙의 일관된 실행이 그 부단한 목표였다. 소련의 평화공존론은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혁명이후 어려운 대내외 여건 「반혁명 세력과 제국주의전쟁속에서 혁명정권의 수호와 세계혁명의 달성」의 시기에 「브레스트·리토프스크조약」(1918년 3월)에 의해 처음 나타났다. 이 조약은 혁명초기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모순론과 계급투쟁의 논리를 국제정치의 영역에 도입시킨 「자본주의 최고발전단계로서의 제국주의론」에 조사한 진술구사였다.

이 조약은 견디기 어려운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으나 조약후에 소비에트정권은 내부의 반혁명세력과 성공적으로 투쟁해 나가고 국민경제를 재조직할 수 있는 틈을 얻어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여 투쟁할 수 있도록 전세계 인민대중의 입장을 강화 시켰다. 레닌·스탈린시대의 대외정책은 불가피한 대내외정세에 대응한 혁명정권의 유지와 세계 혁명 유지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후르시쵸프(1953~64년)시대는 낙관적인 평화공존론을 제창하면서 혁무기의 출현에 따른 상호파멸의 위기를 빚어나면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대외정책 ①자발적이고 일방적인 군축, ②제3세계에 대해서도 핵무기의 출현으로 전쟁불가피론을 포기하면서 핵전쟁의 유발가능성을 갖지 않는 민족해방전쟁에 대한 지원 즉, 군비축소로써 자국의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면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Communism by Example》소극적인 태도의 표명 ③사회주의적 평화 이행론이라는 정책을 취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투쟁《과학과 공업문명의 발전》에 의한 사회주의의 승리라는 주의주의(주관주의) 정책으로 나타냈다.

브레즈네프시대는(1964~83년)후르시쵸프의 낙관적인 평화공존론이 소련붉힉으로 부터의 동구공산국가들의 동요와 중공분리·세계공산주의운동에 소련의 제3세계 관계 약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자 우월한 핵무기의 보유를 통한 「공격적이면서 전술적인평화공존론」을 제창했다.

이 대외노선은 ①군비확대를 통한 사회주의의 승리 ②제3세계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및 무력지원을 통한 혁명수출전략《Communism by Example and War》 ③대미우위 정책을 통한 동구권의 결속강화 ④핵무기 제한회담(SALT)의 지속적인 추진등을 내용으로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열세속에서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었다. 이런 모순점들은 국내경제발전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부터 시작하여 대외관계에서의 긴장완화라는 필연성을 제기하였고 고르바쵸프 대외정책의 새로운 철학인 「새로운 정치적 사고」로 상호의존적 평화공존론을 대두 시켰다. 이를 고르바쵸프는 핵무기로 인한 인류전멸을 회피하는 방법으로서의 사고의 대전환- 우리모두는 지구라는 하나의 전략이나 전술의 주안점은 대(對)미역제에 있었기 때문에 소련으로서는 한반도 자체에 특정한 이해나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자국의 안보라는 견지에서 미·중·일「3각군사동맹체제」와 관련하여 반소동맹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어적이고 반응적인 현상유지책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한반도 통일문제를 보는 소련의 공식적인 입장은 1984년 북한·소련정상회담에서 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련은 남한으로부터 미국이 철수한뒤 한반도가 민주적 기초위에서 재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현존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체결, 남북불가침선언의 채택,군대의 상호감축,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등을 제의한 북한의 중요한 주장을 지지한다. 한국은 통일국가를 이룩해야 하며 이는 조선인민 내부의 문제이다」이처럼 소련의 한반도정책은 ①사회주의진과의 우호·단결이라는 명분및 한반도의 군축·비핵지대화라는 실제정책과 ②아·태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연장선상에서의 남한과의 경제협력 도모 ③남북한-관계개선에의 구체적인 예탈랑당을 통한 영향력 확대 내지 평화공존론의 구체적 실현등의 목표와 관련하여 전개된다고 할수 있다. 현 정전의 최우선과제로 등장한 북방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떤 각도에서 (어떤계급의 이익을 보장)바라보느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나 본질적인 면에서 볼때 남한의 북방정책을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제생산의 위기·재정적자·시장의 협소화》가 전면화되자 제국주의 국가는 이러한 위기를 제3세계국가 들에게 전가(수입개방압력,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조정등)하고, 신식면지국가들을 제편하면서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실제로 해방후 부터 경제구조가 미국에 의존되어 왔던 《노동집약적, 저임금에 기초한 제가격, 덤핑생산에 의해 유지되었던》한국경제는 제국주의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등의 장벽한 벽에 부딪치자 새로운 시장의 활로를 찾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게되었다.이러한 독점자본의 위기와 시장개척의 필연성속에서 강력하게 제기되었던 북방정책이 외적조건인 뉴 데탕트라는 국제정세와 대내적조건인「새로운 차원의 정국주도의 돌파구」와 맞물리면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이전에 가졌던 폐쇄성(?)를 극복하고 대(對)자본주의에 대한 개방정책을 취함으로 파쇼의 북방정책이 현실성을 지닌다고 했지만 그들의 세계전략, 경제적요구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기에 (군비축소, 사회주의경제 토대의 확립)자본주의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바 처럼 이윤을 엄청나게 보장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즉,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의한 계획경제 속에서 운영되기에 상품이 과잉되어 생산이 위축되거나 유통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즉각적으로 그 개방은 중지될 것이며 구조상 무작위적 상품가치의 실현은 불가능 하다. 국가가 주도하는 철저한 계획경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한 독점자본의 대(對)공산권 진출은 반대급부를 동시에 수반하면서 진행되는데 이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파쇼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반공(안보)이데올로기의 붕괴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미군철수, 핵무기 철폐, 군축 등의 해결과제를 객관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미제와 신식민지인 남한의 강고한 연결고리의 약화라는 객관적 조건을 부여한다. 즉 북방정책은 파쇼가 강력히 추진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폭을 경제분야에 한정시킨다는 지 또는 통치방식의 변화(개량과 수탈의 동시 수행)를 통해 반대급부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체제내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기에 파쇼의 이런 딜레마는 제 운동세력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민중의 정치적 세력화의 객관적 조건을 마련하면서 계급투쟁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냉전체제를 최대한 악용하여 제3세계 혁명운동을 모조리 간섭, 전압해온 미국의 정당화논리를 분쇄하여 주체적 체제변혁역량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의 계급, 민족운동을 촉진시킨다는 페레스트로이카와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과의 내적연관성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민중주도의 통일논리의 조직화와 북방정책의 진행과 더불어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어옴 수 밖에 없는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 철수, 군축등의 내용을 제기하여 파쇼의 의도에 쐐기를 박고 파쇼가 당면한 이데올로기적 혼란을 혁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소련의 한반도정책과 북방정책

이전 소련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남한독점자본이 필사적으로 북방정책에 목줄을 내걸고 있는 현실은 세계제국주의 체제의 전체적 동요가 NICs 국가의 숨통을 구식민지적 방식으로 조여올 만큼 격화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혼재하면서 표출되고 계급모순에서 민족모순으로 정진적 발전이 진행된다는 사실 (민중권력을 전제로 하지않는 민족해방은 환상이다./)을 보여준다. 남한에 있어서 계급해방과 통일이 민족의 비원이며 지상과제라는 점을 부정하지 못할지데 구체적인 통일비전을 《민중권력 수립후 연방제 통일》제시하지 못한 채로 진행되는 현 지배계급의 북방정책은 딜레마일 수 밖에 없으나 소련의 개혁정책은 소련사회의 물적토대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에서 때로는 난관에 봉착하는 일도 있겠지만 결코 좌초되지는 않을 것이다.

소련의 개혁정책은 제 3세계 주체 변혁 역량성장으로 미국의 반 혁명 구축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연관선상에서 진행된다.

수배자일동(제23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총무부장, 학술부장, 홍보부장) 통일염원 45년 3월 12일

—치안본부의 부당한 수배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청년학도는 이제 더이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한다. 북한은 우리의 조국이며 반드시 가야할 우리의 산하이다. 또한 그런데도 북한을 소개했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폐기되어야 할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북한바로알기운동을 탄압하는 현노태우 정권은 통일을 원치 않는 반통일 집단임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폭로한다.

계속 분단이 된 현실에서 통일을 위한 초보적인 제기되는 지극히 정당하며 합당하다. 지난 신입생수련회 기간 동안 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배포)을 위배하여 합법출판물을 북한지역에 배포되었던 책자는 내용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참조하여 제작한 것으로 국가 이유로 구속수사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고 부당하다고 본다.

이번일로 아직 정식으로 출범하지도 않은 23대 총학생회 간부 4명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합법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학교의 총학생회 무력화를 떠나 우려한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과 통일운동의 확산을 서 학생운동의 일환임을 직시한다.

이번 수배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민중운동탄압의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즉시 철폐하라.

통일대해로 나아가는 민주화의 시대에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존재가치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마땅히 폐기되야 한다.

하나, 노태우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수배조치를 철회하라!

5공청산과 광주항쟁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없이 중간평가를 강행하려는 노태우정권은 즉각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 치안본부의 전국 수배령에 즈음하여 다시한번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단결의 위력함을 새기면서 8천여 이문청년학도와 함께 반미반독재 투쟁에 선봉으로 나설것을 약속하며 수배조치의 철회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아빠! 언제 집에 돌아오는거야"

―― 무임승차까지 치달아야 했던 어느 지하철 노조원의 이야기

조 홍 연
〈서울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선전홍보부장〉

무임승차 이틀째. 3월 7일 오전 10시경 조합 사무실의 전화는 예전과 다름없이 계속 울려댔다. 「조부장님 일반전화 받으세요」라는 여사무원의 전갈을 받았다. 하던 일을 멈추고 쏜살같이 전화통으로 달려갔다. 수화기를 거머쥔 손에 경련이 일어나며 10일째 계속된 피로가 팔꿈치를 통해 어깨춤으로 이어졌다. 「무임승차는 참 잘한것 같아요. 이번엔 꼭 파업하는 거야? 두고 봐야지」 부인의 기대는 호기심으로 차있었다.

바톤을 이어받은 5살짜리 외동아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쾅쾅 온다. 집에 들어가지 못한 지가 벌써 열흘이 넘는다. 「아빠, 언제 집에 올거야, 빨리 와…응」아들의 또렷한 목소리를 듣고 「응 아빠가 승리하면 장난감 사가지고 갈께, 그때까지 유치원 잘 다니고 엄마하고 잘 놀아」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지하철 노조의 투쟁의 불꽃은 2월 20일 동부경찰서 정문앞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20일 오전 11시 신·구위원장이 취임식을 거행하고 제3대 정운광위원장이 취임사를 했다. 정위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소외되거나 불평등함이 없이 6천 조합원이 들뜰동치 지하철 노조가 민주노조의 선봉에 서서 노동해방을 앞당기자」고 열변을 토했다. 우뢰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졌다.

이어서 속개된 대의원대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신임 부서장들과 임원을 인준 가결했다. 차량지부소속 대의원이 19일 개최됐던 전국 노동자 궐기대회 수도권 집회결과를 통보하면서 「지하철 노조소속 지회장 한 사람이 동부경찰서에 불법구금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2월 19일 대학로에서는 「노동운동탄압분쇄 및 노동악법, 반민주악법 철폐를 위한 전국 노동자 궐기대회」의 수도권 집회가 대학로에서 있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폭력경찰의 원천봉쇄로 성균관대 금잔디광장에서 장소를 변경, 집회를 꾸려야 했다. 폭력경찰의 사전봉쇄와 집회를 마친후 돌아가는 노동자, 학생은 물론 지나가던 시민까지 무차별 연행하여 서울시내에서만도 약 2천5백여명이 경찰에 강제연행 당했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즉시 훈방되었으나 지하철 노조소속 지회장 동지는 성북경찰서에 연행되어 관할서인 동부경찰서로 이첩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차량지부 「부당인사 철회 총회투쟁」으로 공사측에 의해 고발되었다가 철회되었으나 마무리 조사를 해야한다며 동부서로 이첩되었다고 말했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대의원들은 만장일치 결의로 150여명의 조합간부들이 즉시 동부서로 달려가 지회장 동지를 구출하자고 하였다. 동부서 정문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50분. 미리 정문을 봉쇄한 전경 1개중대가 포진한 후 였다. 30분간 걸쳐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며 동지의 무조건 석방을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이에 아랑곳 하지않고 동부서 간부의 명령에 폭력 난산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시작됐고, 지하철 노조원들은 차도로 밀려나왔다. 경찰은 사과탄을 터뜨리며 노조원들의 정당성을 묵살해 버리려는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구의역으로 일단 퇴각한 지하철 노조원들은 전열을 다시 가다듬기로 하고 현장근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가능한한 많은 인원이 구의역으로 오도록 했다.

사과탄을 난사하며 퇴각하는 속에서 동지를 구출하려는 노조원들중 12명이 현장에서 다시 연행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모두 13명을 구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간부회의에서 다짐하였다.

저녁 8시 30분경 구의역에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조합원들은 약 1천여명에 달했다. 오후 8시 40분경 동부경찰서로 다시 공격하기로 하고 구의역계단을 막 내려가려던 참이었다.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구의역일대 골목 골목에 15개중대의 병력을 투입시켜 동부경찰서로의 사전봉쇄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구의역 계단앞에는 백골단이 사전배치 되었다. 일천여명의 조합원들은 경찰의 제지를 뚫으려 했으나 경찰은 최루탄을 또 다시 난사하기 시작했다.

최루탄 가스를 못이긴 조합원들은 구의역 대합실로 후퇴했고 합심에 1천5백명의 노조원들이 집결했다. 노조원들은 서울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직제개편 합의 각서 불이행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어했다.

▲지하철 노조는 지난3월6일부터 「합의각서이행」 「김명년사장퇴진」을 요구하며 3월9일까지 무임승차를 실시했다.

직제개편·합의각서 불이행에 파업국면 맞은 지하철 노조

공사, 서울시는 3·8합의내용 문서화로 제도장치 마련해야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경부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지하철 노동조합은 87년 8월 12일 결성됐고 불합리하고 부패한 직장내 인사제도를 개혁하고자 직제개편을 부르짖게 된 것이다. 노조가 결성된 해, 87년 11월 18일 직제개편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약간의 희망을 갖게 됐다.

그 내용은 88년 6월 1일부터 직제개편을 실시하기로 노사가 약속했고 조합측 주장인 적금간의 기본급 격차를 축소하고 호봉급을 확대해서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한편, 직장내 민주화를 이룩하여 인간평등을 실현하고 평생직장으로서의 계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 포함됐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공사와 서울시는 약속이행을 거부했고 조합측은 직제개편 실현에 총력 투쟁을 전개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하여 88년 6월 17일 제자됐은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합의각서에서 88년 6월 1일부터 직제개편을 소급 실시키로 했으나 공사와 서울시의 외면속에 합의각서는 휴지쪽지화 된 것이다.

조합원들의 불신을 받은 초대 김행부는 물러나야 했고, 2대 김행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퇴를 건 88년 9월 4일 파업을 선포하게 된다. 당시 분위기는 울림픽을 성대하게 치루기 위해 경부는 혈안이 되어 있었다.

공사와 공권력을 청와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9월 파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노조원들을 회유 협박하고 노조를 분열, 무력화시키려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관제언론에 의해 국민여론은 조작되어 갔고 지하철 노조원들의 정당성은 짓밟혀 버렸다. 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조합간부들은 파업을 울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파업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로 인한 조합의 단결은 파괴됐고 조합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감은 팽배했다.

울림픽기간중 천연색 그라운드는 T·V에 계속 비쳐졌고 노동자들의 의식은 지배문화의 쾌락에 빨려 들어가야 했다. 「울림픽을 인질로」 「지하철 경말싸움 셈인가」등으로 관제언론의 사설을 통해 지하철 노조원들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생존권마저 잔인하게 난도질 한 것이다. 울림픽 이후로 파업을 연기한 노조간부들은 조합원들의 원성어린 눈길을 피해야 했고 단체교섭을 통해 89년 1월1일부터 직제개편을 시행키로 한 공사측에 앞보하여 서명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최근에 지하철 노조가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주장하는 88년 10월 5일 직제개편 합의각서인 것이다. 지하철 노조 6천 조합원들은 공사와 새 차례에 걸쳐 체결한 단체협약이 왜곡축소되고 조합측이 양보한 것에 불과한 10월 합의각서조차 휴지쪽지화하려는 공사와 서울시의 태도에 분노하여 89년 2월 28일 방배동본사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2월28일 모여든 3천5백여 노조원들은 분노와 함성으로 본사 건물을 뒤흔들어 놓고 합의각서 즉각이행, 김명년사장퇴진, 전위원장 배일도 동지 석방등을 다짐하였다.

2월28일 부터 3월4일 까지 지부별 본사 총회 투쟁을 교대로 하였고 3월 4일 조합원 총회에서는 3월 6일 0시부터 지하철 전구간에서 무임승차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3월 6일 무임승차 실시를 지지하기 위해 공권력은 끊임없는 탄압을 자행하였다. 4일 오후부터 5일 밤늦게 까지는 전화부대를 동원하여 무임승차 실시에 따른 합의전화를 하였다. 즉 정보기관 요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일반시민으로 위장시켜 조합간부들을 질타하거나 심지어 조합사무실로 방문케 하여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무임승차를 중지하라고 생떼를 부렸다.

그러나 무임승차 기간동안 일반시민들이 보여준 격려와 성원은 실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6일 아침부터 지하철 전 역사에 배치된 전경 및 관계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승차권 구입을 강요했고, 이를 제지하는 노조원들과의 몸싸움이 이따금 있었다.

특히 젊은층, 학생신분인 지하철 이용객들은 우리 노조원들편에 서서 전경들에게 항의하여 주었고, 성금함에 격려금을 주기도 하였다.

공사와 서울시의 기만술책에 지하철 6천 조합원들은 전국의 모든 노동자, 농민, 학생등의 민주인사와 연대하여 노동운동 탄압을 분쇄하고, 노동해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에 사기가 어느때 보다도 충천해 있다.

3월8일 서울시와 조합 대표와의 교섭에서 결렬된 책임을 조합측에 전가한 고건 서울시장은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뻔뻔스럽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증스러움을 느낄 뿐이다.

우리 지하철 6천 조합원들은 세차례나 약속을 어긴 김명년 공사 사장과 서명한 합의각서는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하철 공사의 실질적인 인사권자이며 경영권자인 고건 서울시장이 조합측 주장을 받아들여 직접 확인, 서명, 문서화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말만 앞세운 약속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측은 고건 서울시장이 3월 8일 합의한 내용을 직접 확인, 서명, 문서화하지 않을 경우 16일 04시 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압도적 찬성을 한 바 있다. 이번 투쟁을 성공리에 마치어 전국의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고 민주세력이 함께 결집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 승리하여 개선하는 날 5살짜리 외동아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뜨겁게 포옹하리라. 사회 모든 분야가 소외되거나 불평등함이 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길 기대하면서…

기자의 눈

두번 빼앗긴 입학식

「89신입생 여러분! 왕산의 차가운 바람에 못지 않은 차가운 마음들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라고 시작되는 이 글은 지난 3월9일 어문학관식당에 「두번 빼앗긴 입학식」이라는 제목하에 89학번 여학생의 명의로 게재된 대자보의 첫 문구이다. 「입학식이 교수회의를 통해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섭섭했었는데, 오늘 입학식을 치룬다는 것을듣고 내심 기뻤습니다. 한데, 이번 입학식마저 우리들의 의견과는 달리 선배님(과회장)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로 두번씩이나 우리은 입학식을 빼앗겼습니다.」라면서 「이제 더이상 선배님들께만 맡겨두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행동합시다. 89학번 여러분 입학식에 참여하는게 옳지 않을까요」라는 제안을 했다.

이 대자보는 지난 3월9일 왕산 총학생회 주관으로 거행된 입학식이 그 행사의 성과를 차치하고라도 전형과정속에서 작위된 모습들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날, 학교측의 자세는 「교수회의를 통해 결의된 사항」이므로 인정하지 않았고, 식에 참석한 석일균부총장은 「오늘 이행사는 입학식이 아니라 신입생 환영회입니다.」라고 단정했다.

또한, 학생회와 학생들의 괴리감이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입학식의 주체인 신입생들의 의견은 접어둔채, 학생회측의 이견으로 동양어문대 몇몇 과가 불참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불참한 과의 과회장들은 학교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이 행사를 치루는데 있어서 미비한 준비로는 신입생들에게 새로이 입학식을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위와같은 대자보는 프로그램 진행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학교측의 자세는 「교수회의를 통해 결의된 사항」이므로 인정하지 않았고, 식에 참석한 석일균부총장은 「오늘 이행사는 입학식이 아니라 신입생 환영회입니다.」라고 단정했다.

또한, 학생회와 학생들의 괴리감이나 부모님들의 질의전화, 신입생들의 소속의식 부재등으로 볼때 학생회측의 행동을 옳다고만은 볼 수 없다. 학생회 사업은 토론을 통해 모든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몇몇 소수의 입을 빌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치사는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학교당국이 내용성 없고 형식에만 치우친다는 명목하에 입학식을 폐지한다는 명분이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과거 입학식때 학교측과 학생회간에 빚어졌던 마찰들로 보아 폐지의 또다른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나, 학교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나 업무는 학생들의 편의와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우선시 되어져야한다.

어느 단체나 신입회원의 가입은 경사스러운 것으로써 필요이상의 걸치레는 안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학교에 대한 예경과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학교측과 학생회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최경옥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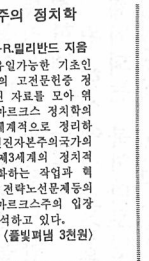
좋은 책 몇권을 소개합니다

마르크스주의 정치학 입문

―R.밀리반드 지음

정치학의 유일가능한 기초인 마르크스주의의 고전문헌중 정치학에 관계된 자료를 모아 엮은 이 책은 마르크스 정치학의 주요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정치분석파 제3세계의 정치적 실천을 이론화하는 작업과 혁명수행상의 전략노선문제등의 정치이론을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검토·분석하고 있다.

(풀빛펴냄 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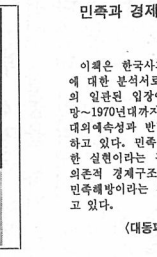


민족과 경제 Ⅱ

―편집부 엮음

이책은 한국사회의 경제구조에 대한 분석서로 반제·반봉건의 일관된 입장에서 일제의패망~197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대외예속성과 반민족성을 조명하고 있다. 민족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대외의존적 경제구조 척결을 통한 민족해방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동펴냄 3천6백원)



소년의 노래

―고리끼외 지음
―이득재 옮김

이책은 러시아혁명 전부터 레닌그라드가 나폐치하에 있었던 제2차세계대전 당시를 배경으로 러시아인들의 삶에 대한 투쟁·애수·인간애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소설집이다.

잿빛을 떠올리게 하는 러시아의 편견을 제거함과 동시에 진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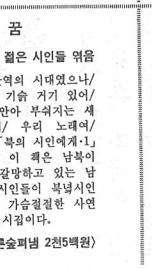
(사계절펴냄 3천원)

우리들의 꿈

―남녘 젊은 시인들 엮음

「그동안 반역의 시대였으나/ 그대 대동강 기슭 거기 있어/ ……힘껏 껴안아 부숴지는 새로운 우리여/ 우리 노래여/ …」 고은의 「북의 시인에게·1」로 시작되는 이 책은 남북이 하나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남녘 82명의 시인들이 북녘시인에게 보내는 가슴절절한 사연으로 엮어진 시집이다.

(푸른숲펴냄 2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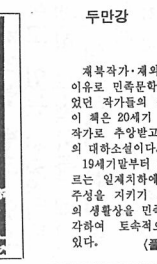
두만강

―이기영 지음

채록작가·채의망명작가라는 이유로 민족문학사에서 추출되었던 작가들의 작품중 하나인 이 책은 20세기 한반도 최대의 작가로 추앙받고 있는 이기영의 대하소설이다.

19세기말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일제치하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조선민중의 생활상을 민족적 특성에 입각하여 토속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풀빛펴냄 4천원)



내가 알을 깨고 나온 순간

―민족문학작가회의 여성문학분과 위원회 엮음

이책은 사회의 부수적 존재로 인식하던 기존의 그릇된 여성관을 바로잡기위해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생활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사회 모든 여성들의 자화상이 필수있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성특유의 개성적인 필치로 그려지고 있다.

(공동체펴냄 3천2백원)

본교 출판실태를 점검한다

교수들의 연구 활성화로인한 결과물과 출판부와의 연계가 우선

본교 출판부는 1954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2백여종의 서적을 출간해 오고있다.

그러나 우수필자의 부족, 판매의 난점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전문인력부족등 대학 출판사가 지닐수 밖에 없는 서적류의 출판이 저조해 그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교재의 단순복사로부터 업무를 시작한 출판부는 63년 정식 발족을 하면서 학술서적·사전·교재·일반교양도서류등의 서적과 교내간행물을 발간해오고 있다.

사전류의 경우, 63년 국내최초의 리시아어 사전을 위시하여 지난해 88년 터어키어 사전에 이르기까지 총 6종의 사전을 출간하였다.

본교 출판부의 사전편찬이 빈역작업의 정확성을 기하기위한, 10교 이상의 교정등 많은 인력동원과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일때, 사전편찬 활성화는 고무적이라 할수 있겠다. 그러나 사전출판은 수익성이 없어 출판부의 독립채산제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한불(한국어-불어), 서한(서반아어-한국어)사전의 경우는 일반출판사에서도 대량 출판되고 있어 판매전략에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출판된 터어키어 사전과 출판예정인 태국어·베트남어·인도어 사전은 본교 전공생들로만 구매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열악한 결과를 보일 것이다.

한편, 사전류를 제외한 교재·학술도서·일반교양도서류등의 출판사업은 미미한 상태이다. 주요교재가 주로 원서인 어학계통의 학과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교재를 복사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출판부에서는 지난85년 교수들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복사업무를 하지않고 있으나, 일본어과·아랍어과의 부분적인 교재 개발만이 이루어질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문과학·사회과학 분야도 마찬가지로 교수들의 자체적인 교재개발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또한, 학술도서류는 매년 발간되는 논문집이 전부이다. 학문의 연구결과 계승과 보급이 주목적인 대학출판사에서 무엇보다도 학술도서의 출판사업이 강조되어야할때, 이와같이 저조한 학술도서 출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학술도서 간행비 지급제도」가 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등 출판부 자체내의 노력부재와 본교 교수들의 연구부족에서 기인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와 아울러 일반교양도서도 대부분의 교수들이 본교 출판부가 아닌 일반출판사에서 책을 발간하고 있어 출간이 저조한 형편이다. 이는 교수에게 돌아가는 집필의 댓가가 일반출판사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본교 출판부가 저자에게 지급하는 인세는, 일반출판사의 10%에 비해 초판10% 중판1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판매 활동면에서 일반 출판사와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열세를 면치못해 집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금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출판부의 인력구성은 편집1명, 판매홍보결 도서관리1명이 전부로 결대적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교 출판부의 판매는 교보, 종로서적,교·내외서점등 5개의 직거래처를 두고 있으며 「전국 도서 출판 협동조합」을 통해 홍보판매를 대행시키고 있어, 일반서점에서는 판매가 열악한 상태이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본교 출판부는 대학출판사로서 갖는 한계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교수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한 우수 집필자와 원고발굴, 판매홍보를 위한 전문인력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교가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전류를 제외한 학술도서, 일반교양서적등 다양한 분류의 출판업무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이에 출판부는 우수필자 발굴을 위해 계속적인 자체노력을, 학교측은 교수들의 연구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울러 교수들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본교 출판부를 통해 보급하는 자세를 선행시켜 교수들의 연구 활성화와, 그결과물과 출판사업간에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이러할때만이 상업성을 띤 일반출판과 달리 대학출판사가 지닐수 밖에 없는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수 있을 것이며, 하문적 연구결과를 보급하는 대학출판부로서 명실공히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안미숙 기자〉

김응진, 변광수교수 저서발간

본교 김응진교수(정외과)작 「비교정치연구」와 변광수교수(스페댄어과)작 「복유럽사」가 각각 출간되었다.

국책 교양과목등 교과과정 개편될 듯

학교측, 올 예산안도 이달말까지 공개키로

90년 1학기 실행을 목표로 국사, 체육, 국민윤리등의 국책교양과목 개편과 교양영어 교수법의 개선책, 지역학 교과과정 도입방안등이 현재「교과과정 개편위원회」와 「교육개선위원회」에서 연구검토중이다.

이는 용인캠퍼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위)의 공개질의서에 대해 학교측이 지난 3월8일(목)학자추위앞으로 보낸 답변서를 통해 밝혀졌다.

학자추위는 지난 3월3일(금) 학교예산부분 학사행정, 장·단기 발전 계획안, 후생복지등에 관련한 42개 사항을 대자보를 통해 공개질의한 바 있다.

학교측 답변서를 보면 ▲3월 이전, 전년도가결산과 금년도 예산안 확정·공개 ▲양캠퍼스 도서관 분리후 용인캠퍼스 도서관의 총장 직속기관으로의 격상 ▲89년 말까지 장학기금 3억4천만원 적립 ▲3월23일(목)까지 자판기 직영화 결정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남태군(서문·독일어4)은 「42개 전 질의사항에 대한 학교측의 답변이 있었지만 마스터플랜의 단기계획안에도 명시되어있는 도서관 신축과 종합대운동장 건설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답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말하고 이번주내 2차 공개질의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심화된 수강신청 편중 현상

효율적인 분반조치·마이크설치등 대책마련 시급해

올해부터 시행된 주야통합의 전일제 수업이, 89학년도 학력고사 평균을 상승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 본교의 질적향상을 가져왔으나, 반면 개강과 함께 주야통합이 된 11개 학과중 일부학과와 교양과목에서 수강신청편중현상이 나타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일제 수업실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간수업에 수강신청을 하게 되면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양어대 일본어과의 경우, 50명 정원의 언어실습실에 두개의 분반이 배정되었던 과거에 비해, 주·야통합으로 추가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분반이 되지않아 과석 부족으로 수업이 불가능했는가 하면, 특히 회화수업의 경우 수업효과의 적정선인 20명선에 두배나 넘는 수강생들이 몰려 강의의 내실도 기하지 못했다.

또한, 해마다 수강신청과정에서 빚대되는 문제로서 일부인기 교양과목및 제2외국어, 부전공 강의등에는 2, 3백명의 수강생들이 몰려 추가신청이 불가했는가 하면, 수강인원의 미달로 기존 개설되었던 강의가 폐강되어 몇몇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들이 재수강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예를들어 「과학사」「환경과생태」등의 일부 교양강의와 제2의 국어수업에서는 적정 수강인원이 초과되어 계단강의를 받거나 아예 수업을 포기해 버리는 학생들도 있어 수강신청 편중에 따른 문제점이 더욱 확대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지연양(동양·일어2)은 「전일제수업이 실시되면서 강의실 배정및 강사진 확보가 충분히 되지 못한 것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권익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학교측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학기 학교측과 학생대표들은 전일제수업실시시 파생될 문제점에 대해 효율적인 분반조치와 강의실 배정,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사진의 보충도 수립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따라 학교측에서는 분반조치를 위해 8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정규신청기간중에 모두 마쳐줌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으나 기간중 신청률이 60%에 그치고, 이후 추가신청이 몰려 이와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이에 기획조정처장 안병만 교수는 「인원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는 학과중 아랍어과는 기존 두개반에서 네개반으로 분반조정 했으며, 인원이 많은 법·상대강의실엔 마이크를 설치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전임야간강좌 총학생회장이었던 이영동(법·법학4)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는 과거 야간강좌 학생들중 직장인의 경우, 야간수업을 듣는 인원의 부족으로 폐강이 될 때 입는 불이익의 최소화와 주야통합에 따른 각종 마무리 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같이 전일제수업이 수강인원편중과 관련해 부정적 측면이 거론된 것은 학교와 학생대표측이 전일제 수업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대중홍보작업및 전일제 수업실시후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안 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측에서는 효율적인 분반작업과 분반이 불가한 교양강의에는 마이크 설치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교양강의의 개설과 우수한 강사진 확보를 위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함도 개선책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김창섭 기자〉

도서관 열람실 31일까지 폐쇄

사회과학관 4,5층 임시 열람실로 개방

오는 3월15일(수)부터 3월31일(금)까지 진행되는 도서관 보수공사로 인해 도서반납 및 등록점인만 2층 열람실에서 실시되며 나머지층은 모두 폐쇄된다.

도서관 보수공사는 13일(금)부터 착수하여 기본적 내부공사, 화장실 개수공사, 방음창공사등이 진행되며 4월1일(토)부터는 부분적으로 도서관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도서관 보수공사기간에 사회과학관4,5층을 임시열람실로 아래와 같이 개방한다.

△오전5시~오후8시30분(3401, 3402) △오후5시~오후10시(3405제외한 4·5층 전체) △오후10시~12시(3401, 3402, 3403)

직원노조 오늘부터 파업

학교측과 아무런 합의점 못찾아

본교 직원노동조합은 13일(월) 오후5시 6104에서 「쟁의특별위원회 구성 선포식」을 갖고 오늘 오전 9시 정각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3월2일(목) 임시총회에서 전면파업을 결의하고 노동부에 쟁의신고를 한 이래 학교측과 별다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제 중앙노동위원회의 단체교섭 2차 알선과정에서도 해결되지 않아 결행된 것이다.

실제상황(!)

○…12·16선거땐 컴퓨터조작명령을 발포한 노정권, 재신임국면에 접어들자 또하나의 기막힌 작전명령 「특호」를 선포해.

특호내용인즉, 타계트:제신임 고지사수, 사정거리:5공지점에서 0.5㎞전진, 발사각도:육공(60°), 포탄:6.29M 공약남발적격탄, 방법:컴퓨터로 속전속결 (주의:불발시 공포남발 야권초토화 감행)이 그것.

팀스피리트훈련으로 공해상이 유사시 아닌 유사시인 이즘 또하나의 「실제상황」에 민초들 용전태세로 5공8년 절단에 앞장서야할 터.

○…전술 치고있는 신문팔이 소녀군(群)으로 이문빌딩 산들 활기찬 등교길에 매일 소금을 뿌려야 할 판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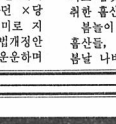
올해초 창간된 통×교의 일간지를 등교길에서 섬나라식 억양으로 「○○일보 사이요」라며 여성판매원들이 「성별(性別)」판매를 하고있어, 타국에서 신자 대거수입설이 풍문이 아닌듯 해.

안팔리는 신문 아침강매와 여성판매원 수입 말고 학교앞 인도가 아닌 자유언론 경론직필의 대도(大道)로 나서는 길이 영업실적 올리는 비결임을 각인해야 할사(事).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것 없다고, 민생국회(?) 종결에 민초들 떨떠름한 표정.

반민주악법, 민생법안 개폐하겠다며 호언장담하던 ×당 의원들, 중간평가 빌미로 지연수법펴더니 안기부법개정안에는의원숫자미달 운운하며 일방적인 조기산회로 회피작전까지 펴는등 정작 위민법안은 소외당해.

선심공약 유포하여 국민공복(公僕)자청하는 당복(黨僕) 나으리들, 당복 청산 안하다가 느즈막한 말년에 「사(寺)서고생」할까 크로니클자 우려되는 바.



○…새학기 시작으로 흙산들 분주한 이문벌판 대조적인 봄맞이 모습이 보여.

모신입흙산이 등록금마련차 고향에서 가져온 김을 판매해, 모교수님과 주위흙산이 기꺼이 손님이 돼주는 흐뭇한광경이 있는가하면, 환영회, 동문회로 밤낮없이 음주가무에 심취한 흙산들의 모습이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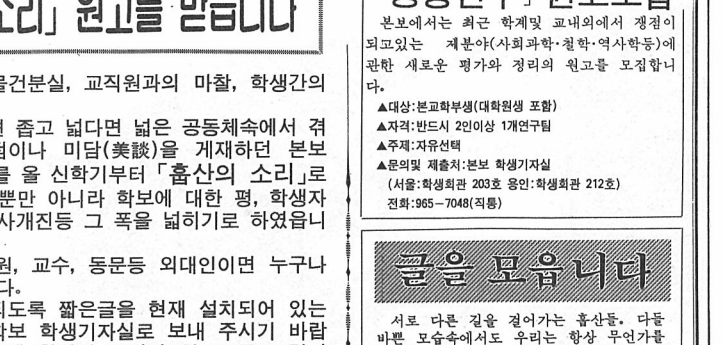
봄놀이 스케줄(?)에 바쁜 흙산들, 일춘간의 여흥이야 봄날 나비잠잘은것, 주무가친 잠꼬대로 한학기내내 늦잠자는 건 아닐지 걱정되는 바.

○…학생회관 열람실 점거사태(?)가 며칠전 왕산골에 발생, 하루만에 타결을 보았다고.

점거사연인즉, 지도부측 흙산들이 간부회의장소 준비를 위해 이른아침부터 학생회관 열람실에 있는 집기류 (?) 를 복도로 내놔, 향학열을 좇아 열람실찾은 흙산들하무종일 도서관 없는 설음에 젖어 있어 진정 누굴 위한 회의에 누가 박대 (?) 받는지 의심이 가…

늦게 치뤄질 회의이고보면 너무성급한 점거(?)가 아니었는지? 흙산위한 간부회의의 의미마저 삭감된듯해 크로니클자 걱정되는 바.

열람실 점거사태



동정

상경대 학생회장 유고궐석

14~16일 후보등록, 22일 보궐선거 실시

상경대 과회장단 협의회는 학생회장 서병한군(경제4)의 군입대로 인한 궐석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13일(월)선관위를 구성 22일(수)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일정은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후보등록, 17일(금) 1차유세, 21일(화) 2차유세를 갖는다.

동아리 대표자 회의

서울·용인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이하동연)「제1차 경기 대표자회의」와 「임시동아리 대표자회의」가 오늘 14일(화)과 오는 17일(금) 각각 개최된다.

극예술연구회「연결」「한씨연대기」공연

용인캠퍼스 극예술연구회 「연결」주최 「제5회 정기공연및 신입생 환영공연」이 오는 3월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오후4시 문리학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의 공연국은 활석영작「한씨연대기」로 김일성대학의학부 교수인 주인공「한영덕」이 한국전쟁당시부터 월남이후 폐인으로 사망할때까지 양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과정을 그리고있다.

〈영화상영안내〉

◇서울캠퍼스 —시청각비데오룸(2202호)

▲3월14일(화): 오전10시「북한의 명산」오후2시「굿바이 걸(Goodbye girl)」오후5시「마지막 황제(The last Emperor)」

▲3월15일(수): 오전10시「북한의 명산」오후2시「마지막 황제(The last Emperor)」오후5시「굿바이 걸(Goodbye girl)」

▲3월16일(목): 오전10시「북한의 명산」오후2시「굿바이 걸(Goodbye girl)」오후5시「마지막 황제(The last Emperor)」

▲3월17일(금): 오전10시「북한의 명산」오후2시「마지막 황제(The last Emperor)」오후5시「굿바이 걸(Goodbye girl)」

▲3월20일(월): 오전10시「거미의 신비」오후2시「무기여 잘 있거라(A Farewell to Arms)」오후5시「지지(Gigi)」

◇용인캠퍼스 —어문학관 영사실(1412호)

▲3월14일(화): 오후1시30분「제3의 사나이(The Third Man)」

▲3월15일(수): 오후1시30분「미드나잇 익스프레스(Midnight Express)」

▲3월16일(목): 오후1시30분「지옥의 묵시록」

▲3월17일(금): 오후1시30분「이프(If)」

▲3월20일(월): 오후1시30분「율(Yol)」

〈동 문 회〉

◇서울캠퍼스

▲금오고:3월14일(화) 오북경 오후5시30분

▲대일외고:3월15일(수) 상경탑 오후5시 회비5천원

◇용인캠퍼스

▲대전고:3월14일(화) 교양학관1층 휴게실 오후5시30분 회비3천원

▲원주고:3월14일(화) 학생회관식당 오후5시30분

제41기 수습기자 모집

주입된 이데올로기, 올바른 가치관의 부재, 오도된 역사속에서 우리는 자신도모르게 참진실과 우리들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읍니다. 현실의 모순을 냉철한이성으로 비판할수 있고 누런 갱지에박힌 활자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안을수있는 「정론직필」의 파수꾼을 찾습니다.

△자 격=1학년 재학생
△모 집 부 문=일반기자 ○○명
사진·컷기자 각○명
△제 출 서 류=응시원서(본사소정양식) 1통,
사진1매
△원서배부및 접수처=
서울—학생기자실(학생회관 203호)
용인—학생기자실(학생회관 212호)
△원서 접수 기간=3월2일~3월29일
△시 험 과 목
1차필기시험—국어 (한문·기사작성포함)·상식·논문
2차면접시험—1차합격자에 한함
△시 험 일 시=1차—3월29일 2차—3월30일 (장소 추후공고)

「흡산의 소리」 원고를 받습니다

도서관에서의 물건분실, 교직원과의 마찰, 학생간의 의견대립….

외대라는 좁다면 좁고 넓다면 넓은 공동체속에서 겪고 느끼는 문제점이나 미담(美談)을 게재하던 본보 「독자의 소리」를 올 신학기부터 「흡산의 소리」로 이름을 바꿔 복지뿐만 아니라 학보에 대한 평,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의사개진등 그 폭을 넓히기로 하였읍니다.

본교학생, 교직원, 교수, 동문등 외대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읍니다.

매수제한없이 되도록 짧은글을 현재 설치되어 있는 투고함이나 외대학보 학생기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투고함은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읍니다.
▲서울캠퍼스:학생회관, 도서관 휴게실, 사회과학관 인문과학관
▲용인 캠퍼스:교양학관, 어문학관, 문리학관, 학생회관, 사회과학관, 버스승차장

「공동연구」 원고모집

본보에서는 최근 학계및 교내외에서 쟁점이 되고있는 제분야(사회과학·철학·역사학등)에 관한 새로운 평가와 정리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상:본교학부생(대학원생 포함)
▲자격:반드시 2인이상 1개연구팀
▲주제:자유선택
▲문의및 제출처:본보 학생기자실
(서울:학생회관 203호 용인:학생회관 212호)
전화:965—7048(직통)

글을 모읍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흙산들. 다들 바쁜 모습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속에서 깨달아야 할 아픔들, 대학생활에서 얻게되는 무수한 고민들. 이 모두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글거리 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관심을 바랍니다.

▲모으는 글:시, 수필(6~8매), 문예산책(연극·영화평6~8매), 꽁트(10~15매)
▲접수및 문의처:서울—학생회관 203호
용인—학생회관 212호

코카콜라 "오직 그것뿐(?)"

◇ 수입상품광고문화의 문제점 진단

문화시론

김 경 미

〈정과·신문방송3〉

Ⅰ. 머리말

지난해 결정된 양담배 수입자율화 조치를 시작으로 미국의 압력에 의한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밀려드는 미국상품과 함께 혹은 상품보다 앞서 범람하고 있는 수입상품광고는 60년대 다국적기업인 코카콜라의 국내진출을 선두로 아무런 문화적 여과없이 국내광고의 대중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수입상품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수입상품의 광고로 인한 심각한 문화적침투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인간의 문화가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광고는 바로 그 사회의 생활양식에 기초해서 제작된 문화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수입상품 광고가 우리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는 광고산업이라는 「경제적 성격」과 그 과정의 산물인 광고물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이란 이중성을 갖는다.

광고산업은 일종의 의식산업으로 사회·문화적 상징들을 동원,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하여 상품판매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동시에 상품판매를 위한 의식적 측면—상품에 대한 정보나 이미지는 현실의 특정부문만 확대·강조—을 담당한다.

그것은 상품의 광고내용을 자본주의적의식, 즉 지배계층 (또는 제국주의 국가)의 의식을 선전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광고는 경제적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글에서는 수입광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중심으로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몸말

광고물은 현실세계의 수동적인 전달자가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메시지를 변형시키는 「적극적인 중개자」다. 광고물이는 미국은 미국상품의 해외진출을 위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침투해 있는 그들의 자본과 경영기술, 제작기법을 총동원해 미국상품광고를 제작 유포하고 있다. 미국적 생활양식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들 광고물은 그 사회의 의식주, 관습, 윤리등 문화가치 전반을 미국문화와 동일한 체질로 변화시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코카콜라와 커피가 지배적 생활음료화 된 것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수입상품 광고의 서구 지향적 이데올로기는 대중을 계급적 환상과 소비문화에 젖게 해

라는 모의된 세계속에서 소비자는 현실세계의 사회구조 파악의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할 수 있는것을 통해 사회적 지위가 상승해거나 하락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한대의 자동차와 컬러T·V 를 가진 사람은 지위가 상승했다는식의 계급적 환상을 갖게 되는것이다.

한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국의 새로운 소비문화는 자국의 소비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제국주의의 소비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소비문화의 사용은 교양과 계층의 우월을 가늠하는 상징의 하나로 취급하게 되는것이다.

세계광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광고물은 「코카콜라」는 입맛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을 미국식 식생활에 빨리 길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침식사 대용식이라는 미국산 「콘후레이크」는 매일 힘든 노동에 시달리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과는 무관한 건강식·영양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와같은 광고물의 서구지향적 이데올로기는 우리나라의 광고 수용자를 제국주의 문화의 영향하에 놓이게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깊게 눈여겨 봐야할 것은 제국주의 문화란 제국주의를 위주로 형성되는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의 광고물 수용자들은 제국주의 문화에 대해 호의적인 의미체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제국주의문화를 우리의 문화와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고, 광고물의 세계를 통해서 현실의 제국주의와 신식민지의 종속관계를 온폐시키고 만다.

지난해부터 전면수입개방된 양담배 광고는 선정적인 여인이 라이드 치킨」광고는 입맛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을 미국식 식생활에 빨리 길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침식사 대용식이라는 미국산 「콘후레이크」는 매일 힘든 노동에 시달리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과는 무관한 건강식·영양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와같은 광고물의 서구지향적 이데올로기는 우리나라의 광고 수용자를 제국주의 문화의 영향하에 놓이게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깊게 눈여겨 봐야할 것은 제국주의 문화란 제국주의를 위주로 형성되는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의 광고물 수용자들은 제국주의 문화에 대해 호의적인 의미체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제국주의문화를 우리의 문화와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고, 광고물의 세계를 통해서 현실의 제국주의와 신식민지의 종속관계를 온폐시키고 만다.

지난해부터 전면수입개방된 양담배 광고는 선정적인 여인이 담배를 권유하고 있으며, 특히 양담배가 우리국민의 불매운동으로 성인층으로부터 외면당하자 잠재적 구매자인 청소년층의 흡연을 부추겨 새로운 양담배 수요자를 창출하려는 의도를 노골화시키고 있다.

T·V광고보다 상품광고 내용규제가 덜한 잡지등의 간행물에서는 우리나라 상품광고중에서도 외국인—여성중심—모델을 등장시키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광고속에 나타나는 성의 상품화는 각종 광고물이 선전하고자 하는 상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여성의 육체를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시선을 자극시키고 있다. 광고물에서 여성은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더욱이, 광고물에 등장하는 젊은 미모의 여성, 소위 「성적매력」이 뛰어난 외국여성은 우리국민에게 민족의식을 희석화하고 서구를 동경하게까지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Ⅲ. 맺음말

수입상품 광고의 서구지향적 경향은 우리사회의 문화에까지 파고들어 전통문화와 독창적인 문화, 사회적 창조성을 파괴하고, 제국주의의 논리에 의한 획일적인 문화를 요구한다. 또한 서구상품이 우월하다는 선호도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손쉽게한다.

지난해 한미경제협력실무회담 회의에서는 90년부터 외국인 광고대행사의 국내지사및 자회사 설립 허용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인정된 17개 국내 주요 광고대행사는 이미 미국과 일본의 주요 광고회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형편이다. 전면적인 상품수입자율화와 곧이어 진행될 광고시장 개방은 우리나라에서 미국기업의 경제적 이윤보장과 문화적침탈을 가속화 할 것이다.

이미 국내 영화계에서는 미국 영화수입 직배조치에 대해 미국의 문화적 침탈에 반대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광고계 전반에서도 수입성 광고에 대항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대처와 문화적 주체성을 지키려는 자각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말의 쓰임새 (157) 손

〈병색(病色)의 큰손 —도 일간지 기사 제목〉.

여기서「큰손」은 장영자 사건의 주인공을 가리킨다. 그러면 여기서 「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에는 하나의 중심 의미가 있고 거기서 방사되는 응용 의미들이 있다. 「손」의 중심의미는 「인간의 손」이고 「큰 손」의 「손」은 응용 의미들 중의 하나인 「물건에 대한 아량」을 뜻한다.

선배의 웅음처럼

신입생 수필

형에게.

형! 봄이라 느끼기에는 아직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버스 창사이에 낀 회색의 먼지와 가로수의 비린듯한 냄새, 희멀건 태양. 봄을 느끼기에는 아직 따사로움이 부족합니다.

이제 저도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쥐어진 학생증이 저의 신분을 증명할지라도 저는 아직 제 자신을 진정한 대학인, 진정한 의대인이라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자율이 넘치는 곳. 그것이 제가 신입생으로서 느낀 최초의 느낌이었습니다. 제게 자율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석이 주어졌지만, 아직 그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지금 제게는 단지 들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형, 자율이란 단어는 웬지 혼자가 된듯한 느낌을 안겨주고, 이것이 과연 대학인가 하여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외로움에 휩싸여 오는 발걸음이 무겁기까지 했습니다. 두렵이니, 겁쉬니 하는 말의 홍수속에서 일굴이 켕그려지고 부정적인 면만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낯 모르는 일굴을 대할때마다 고등학교 시절이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형이 제게 해주신 말씀은 부끄러울 정도로 위축되어 있는 저를 항상 새롭게 합니다. 스스로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다가오지 않고,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지나가버리는 것이 대학생활 이라는 말씀, 언제나 모든 것을 속단하지 않는 객관적인 자세와 합리적으로 분석, 비판, 종합할 수 있는 진정한 학문에의 열망, 자신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체속의 일원으로서 조화를 이뤄야 하는 생활. 형이 해 주신 말씀은 모두 생활지침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형이 한잔, 또 한잔, 술을 마셔가며 열정을 토하는 모습. 안경을 손 끝으로 올려가며 책장을 넘기는, 아직은 따뜻하지 않은 바람을 맞아가며 하루를 웃음으로 보내시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소매를 걷어 굳게 쥔 주먹을 들어 올리고 입을 크게 벌려 내면으로의 외침을 부르짖는 모습. 형, 손안의 날카로운 들이 진정한 형의 마음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모순된 구조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자율을 찾기 위한 형의 모습은 피와땀, 그리고 끊임없이 흘리셨을 눈물 그 자체였음을 압니다. 최루탄 속에서 전쟁아닌 전쟁을 겪는 대학인들은 결코 기성세대의 그늘 아래에서 시름 시름 앓아가는 여린 풀잎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를 찾기 위한 몸부림, 그리하며 「나」혼자가 아닌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갈등과 고민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전쟁아닌 전쟁을 겪는 대학인들은 시름시름 앓는 풀잎이 아니었습니다."

로 분석, 비판, 종합할 수 있는 진정한 학문에의 열망, 자신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체속의 일원으로서 조화를 이뤄야 하는 생활. 형이 해 주신 말씀은 모두 생활지침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형이 한잔, 또 한잔, 술을 마셔가며 열정을 토하는 모습. 안경을 손 끝으로 올려가며 책장을 넘기는, 아직은 따뜻하지 않은 바람을 맞아가며 하루를 웃음으로 보내시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소매를 걷어 굳게 쥔 주먹을 들어 올리고 입을 크게 벌려 내면으로의 외침을 부르짖는 모습. 형, 손안의 날카로운 들이 진정한 형의 마음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모순된 구조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자율을 찾기 위한 형의 모습은 피와땀, 그리고 끊임없이 흘리셨을 눈물 그 자체였음을 압니다. 최루탄 속에서 전쟁아닌 전쟁을 겪는 대학인들은 결코 기성세대의 그늘 아래에서 시름 시름 앓아가는 여린 풀잎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를 찾기 위한 몸부림, 그리하며 「나」혼자가 아닌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갈등과 고민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과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린 형이 누구보다도 진지해보입니다.

형! 대학의 참된 문화를 아직 깨닫지 못한 제게 형은 도움을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간신히 일어날 때 이제를 붙잡고 먼저를 펼쳐주시는 선배가 되셔야 합니다. 언젠가, 형과 이제를 나란히 하고 대학인으로써 우뚝 설수 있는 제자신을 그려봅니다.

김 연 희

〈인문·언어1〉

우리가 있으니 대학이 있다

수필

대학생활의 가장 친근한 안내자는 동시대를 개척해가는 동지로서의 선배

『산이 있으니 산에 오른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우리는 아마도 고등학교가 있으니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이 있으니 대학에 들어온 것은 아닐까. 달리 말해서 대학이 없었다면 대학에 들어오려고 그렇게도 밤잠을 설치가며 고심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 된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올때, 합격자 발표이후 며칠의 공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해야할 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내오지 못한 채 고등학교 때처럼 그저 ①부모님이 하라니까 ②선생님의 권유로 ③참고서를 보고 ④남들도 하니까식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습과 낭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면 대학이라는, 인간의 자주적 사상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일을 찾아 나가도록 단련시키는 곳에서 이제는 이런 지침을 갖고 생활해야 할 것인가.

앞에서 「산」이야기를 했으니 등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새로운 산에 등반할때 안내자가 없다면 최소한 지도와 나침반은 있어야 한다. 지도는 그산을 오르고 정복할 길이 나와 있으며 그 길은 이미 선인이 개척해 놓은 길이다. 처음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그 산의 생리도 모르는 채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운이 좋아 정상에 도달할지도 모르지만 매우 위험한 경우에 처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하며 그 산이 친절지면으로 혹은 세월의 풍파에 변하기 전인 가장 최근의 경험자가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할 안내자가 될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동시대의 생리와 동시대의 고민을 함께 겪해가는 사람으로서 서로의 공감대가 넓기 때문이다.

대학이라는 곳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곳이라해서 오늘의 대학과 오늘의 사회를 이해하기 보다는 자신의 안일과 자신만의 판단으로 생활하게 된다면 험난한 세파에 휩쓸려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친근한 안내자, 아니 동시대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친구로서의 선배를 믿고 존중하며 항상적인 대화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선배가 안내자가 될수는 없을 것이다. 무턱대고 아무 발자국을 뒤따른다면 절벽을 뛰어내려야 할 경우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잘못된 길이 있다면 지워나가는, 그리고 새길을 만들어 나가는 용기 또한 필요한 것이다.

「대학이 있어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면 분명 「우리가 있으니 대학이 있다」는 주인된 의식으로 앞으로의 생활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 동 일

〈동양·마인어2〉

아라가와에서

이정주 〈사양·영어2〉

흘로 있다는 것으로
커피를 마신다
내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짙긴 목숨의 삶들이란 걸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오늘이지만
와사비와 생선회의 비린내가
왜 핏빛으로 느껴지는 지를
오늘쯤은 알것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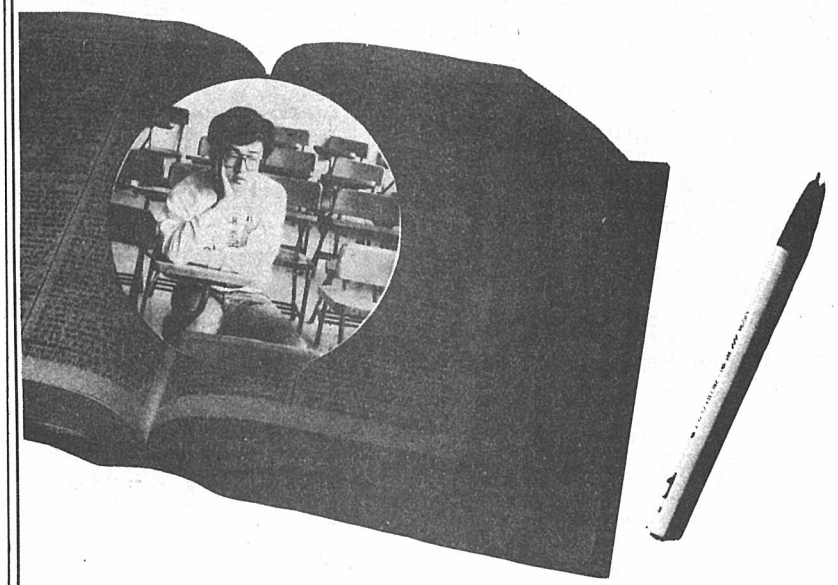
양담배로 대표되는 양키문화와
너무 질게 스며있는 쪽바리의 풍습이
지금도 활개치는 내 조국의 수도에서는
바다를 못건너 여짓 구천을 맴돈는
아라가와의 넋들을 알까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알은 개혁에의 실천을 수반해야한다고
스스로 느끼는 반역의 가슴속에
겁없이 뿜어낼는 양담배 연기는
타인의 땅에 있다는 것으로 변명이 될 것인가

눈을 감아도
시퍼렇게 떠오르는 아라가와의 물빛은
피비린내 나는 내 나라의 역사로
가슴속에 잠긴다

서울이여,
흙냄새를 잃어버린
국적없는 나라의 수도여.

(주) 아라가와는 일본 도쿄에 있는 강이름으로 일제시대에 많은 한국인들을 징용해 가서 일하게 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죽어갔다고 하여 일본인 학우들에게 강담하여 새로운 한국인 학우들을 강담하여 새로운 한국인 학우들을 강담하여



신입생인 나는…

"학문과 낭만의 열기만이
가득할 줄 알았던 캠퍼스.
그러나 저 난무하는
최루탄과 돌은,
그리고 H선배가 말한
시대의 아픔이란 무슨의미일까"

—대학인의 꿈은
올바른현실인식속에서
찾아나가야 합니다—

외 대 학 보